

B8-194  
CPh.d.5

국민이 못막으면 재벌황포 누가 막나?

現代 재벌 황포에 노동자만 줄초상

“소떼는 북으로 보내고  
노동자는 길거리로 내몰고”



현대중기 노동자를 현대건설로 고용승계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초등학교 시절 국기계양대를 향해 고개 젓히고 정성스레 손가락 꼭모아  
가슴 한 견에 갖다대며 다짐했던 맹세.  
그 맹세를 잊지 않고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뉘'으로 보여 주고자 청춘을 바친 이들이었습니다.  
  
여기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농성단



인원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8	194

조계사 108일의 기록

98년 여름에서 겨울까지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농성단

북방산정

고려 장수들이 말달리던 만주벌판을 향해 엮드린다  
부여, 발해, 여진, 송화강 황토흙 무덤이 널려있는 북방산정 백두산  
폭풍우가 소리지르며 온 산을 황룡처럼 외치는 압록강 물줄기

호랑이가 기어가다가 눈빛을 토해내고  
5천년 역사를 한 몸에 안고  
말달리던 벌판을 향해  
을지문덕 장군의 눈빛이 쏟아져 황금 노을이 되어  
온통 산천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오후  
한 편의 시로 산 역사를 던진다.

반도의 남쪽 땅 백제의 혼령이 남아있는 땅  
한강을 끼고 굽이돌아 서쪽으로 가는 한강물을 발등에 적시고  
북악산을 한 손안에 안고 있는 조계사  
가까이 보이는 삼각산이 멀리 보이듯  
관악산 봉우리 위에 흰구름이 등실 떠  
초하룻날 별처럼 속삭이고 있는 한총련

어서 힘차게 일어나 수나라 군사들을 물리치던 투혼을 보여다오  
이 나라 산천을 강점하고 있는 낯은 몸뚱이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랑이 같이 우글거리고 있는 양키들에게 피흘리는 산천을 맑게 씻기기 위해  
몽고 군사들을 물리치었던 아나네들의 입술개똥 같이 일어나자

만일에 우리들이 절망하고 있다면  
땅을 빼앗기고 온 몸 갈기갈기 찢겼던 여인들의 한처럼 되고 말 것이니  
맑고 깨끗한 이슬방울같은 영롱한 아이들의 눈망울같은 한총련  
이제 우리 모두는 그대들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오직 그 하나 사람중심의 사랑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게 하려  
조계사 부처님에 참말씀으로 너무나도 푸근한 솜털같은 사랑이었지  
오라 어서오라 가슴에 남아있는 그 아픔을 씻겨 줄 조계사로 오라



■ 진관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자료집 차례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001 권 두 시
- 002 차 례
- 003 발 간 사
- 005 함께하는 글

농성단이 지나온 길, 가야할 길



- 008 활동보고서
- 014 정부당국과 대화
- 016 대중집회
- 018 기자회견문/ 단체 공문/ 취재요청서
- 024 각계 각층의 탄원서
- 028 농성 지지서명
- 031 기타 모음

어머니, 자식사랑으로 나선 길



- 048 수가협 결성선언문
- 051 수가협 활동보고와 계획
- 053 수가협 회칙
- 055 대통령께 드리는 부모님 탄원서

농성투쟁이 비춰진 곳



- 065 기사 모음

함께한 동지들에게

- 117 6년의 수배생활
- 124 농성생활
- 127 사랑하는 막내아들에게
- 131 무심한 아들이 어머니께 드립니다

주장이 있는 글

- 134 국가보안법 철폐
- 137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 140 준법서약서 철회



사진으로 보는 농성

- 146 농성일지



- 160 농성자 소개
- 162 양군모 농성단
- 165 명동성당 농성단

발 간 사

실낱같은 희망으로 자리잡은 조계사에서  
수배풀려 당당하게 나갈 때까지

농성 108일! 자료집 발간에 즈음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한 조계사 농성투쟁이 어느덧 석달째를 넘어가고 있다. 조계사 농성단 8인은 최소한의 양심과 지조를 지켜가고자 쉽고 편한 길보다 어렵고 험란한 길을 선택하였다. 그렇게 한여름의 불볕더위를 뺨뚱같은 천막에서 땀으로 목욕해가면서 이겨냈다.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감기 몸살을 앓으면서도 우리는 농성투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풍찬노숙이나 다름없는 험란한 천막생활로 한겨울을 통째로 견뎌 낼 각오를 다지면서도 오히려 사기는 충천해있다. 무엇이 우리의 투쟁 의지에 불을 붙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바뀐 세상에서도 쫓겨다니며 여전히 자유를 갈구해야만 하는가? 산위에서 굴러내리는 바위를 무한정 밀어올리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어쩌면 우리는 끝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세상없이 어리석게도(?).....

돌이켜 생각할수록 가슴 아프다. 정권교체를 위한 지난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가? 분단세력,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나라를 망조에 들게 만들 때, 우리가 이들에 저항해서 청춘을 바쳐가며 투쟁했던 것은, 양심이 살아숨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인내하고 투쟁해서 일구어놓은 정권교체하의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달라진건 무엇이란 말인가? 3·13 특사를 지켜보고 8·15특사를 지켜봐도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변하여 왔을뿐이다. 아직도 400여명이 넘는 양심수가 갇혀있고, 수백명의 수배자가 양산되어 어두운 거리에서, 골방에서 상실과 박탈의 삶을 살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다.

1998년 12월 10일! 이 날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이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중에 인권상을 받은바 있다.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는 세계인권선언문에 서명까지 했다. 정기국회에서 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12월에는 국가인권위



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이러한 일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야흐로 인권정국이 도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권을 신장하여 민주국가로서 그 위상을 드높일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지만, 역대 정권중 가장 개혁적일거라 기대를 모았던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임을 표방하면서도 정치수배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올 12월에 인권법을 공포하고 국민 인권위를 설치한다고 하나 국가보안법과 양심수가 엄존하고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인권을 논할수 있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에 우리 조계사 농성단 9인은 정치수배 해제·양심수 석방·국가보안법 철폐·준법서약서 철회 등의 인권현안들을 김대중 정부에 제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우리 양심세력들이 인권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며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신명을 다바쳐서 정치수배 해제와 양심수 석방을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계사에서 보낸 시간보다 몇 십배 더한 고통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9인의 동지들은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합의하고 약속한 시간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최후까지 굳세고 튼튼하게 우리의 자리를 사수 할 것이다.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탄생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인권 정부! 인권 대통령! 진정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면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서 폐지 등의 인권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릇 개혁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개혁 정책들을 제출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 집행을 담보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진정 개혁적인 정부로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역사에 길이 남길 바란다면 현재 목전에 처해있는 인권현안을 처리하는 자세와 입장부터 지난 권위주의 정권과는 다르게 상식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투쟁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찬 바람에 투쟁의 의지를 북돋우는 겨울 문턱, 조계사 농성 천막에서

단장 오창규

함께 하는 글

# 기다리며 방관할 수 없어 수가협을 결성하고 나선 부모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수배자가족협의회

공동장 유철근

1996년 8월 연세대 한총련 사건의 주모자로 수배령이 내리고 순식간에 전화까지 도청이 되는 상태를 당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허탈감을 이기지 못해 자식 하나를 없는 셈 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던 적 그 얼마이던가? 가슴이 하도 답답하여 자식 하나 안놓은 셈 치면 될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치면 애미는 순간에 양보하듯 울음을 멈추지만 새벽 잠자리에 서 돌아누워 혼자 흐느껴 울어대고 그 울음소리에 어쩔수 없이 일어나 앉아 다시 육박지르듯 화를 내면 그때는 도망갈 구멍이 없는 강아지처럼 되려 보고싶은데 어찌냐고.

"이 밤에 이 놈이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굶고 고생을 하는지?", "보고싶어 못 살겠는걸 어찌란 말이냐"고 크게 울음 터뜨려 속이 썩었던 술한 세월들... 애미는 혈압으로, 애미는 현기증으로 쓰러져 수개월 두문불출 해야 했던 날들을 어찌 몇 마디로 다할 수 있을까?

형사들은 항시 주변을 맴돌며 일거일동을 감시했다. 어떤 땀 다방에 손님처럼 몰래 앉아 통화내용까지 엿듣기도 하고, 때로는 밤 12시가 되도록 진을 치다 집으로 찾아와서는 새벽 4시가 넘도록 잠 못자게 하기도 했다. 그래도 행여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해질까봐 참고 또 참아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인 거제까지 수색을 하고나서 찾아온 형사들은 "병문이 아버

님, 막걸리 서너통 가져가서 고향에 계신 분들께 대접을 하셔야 겠습니다"라고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예사롭지 않았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俞氏가문인데 병문이가 빨갱이로 매도되었으니 이웃과 일가친지들이 겪어야 할 낭패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당황하고 의구에 찬 눈초리들을 생각할 때면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다. 이렇듯 생활의 구석구석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월들을 보낸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군부타도를 외치던 소위 야당투사 김영삼은 어느날 갑자기



기 5.18주범들과 손을 잡고 변절을 하였고,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수입만은 앉겠다던 다짐은 '세계화'의 이름 하에 거짓이 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실망과 좌절을 맛보았기에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고 직장에 연연하고 있는 사회인들은 무관심과 체념으로 바론말다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저항의식과 정의감이 투철한 청년 학생들은 이 불의를 보고만 있지 못해 대선자금 공개와 김영삼 퇴진을 요구하게 되었다. 불안해진 김영삼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궁리 끝에 96년 연세대에서 무모하게 학생 5천여명을 강제연행하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침묵과 굴욕을 당했던 걸 생각하면 분개하고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다려온 정권교체, 그 역사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기에 이 모든 부당함이 해결되고 불명예가 씻겨질 줄 알았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던 국민의 정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계속 인권을 무시한 채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옛말에 "나무라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알맞다"라는 말처럼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고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면서 애간장을 타게하는 현 정부가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법무부로 검찰청으로, 여당 관계자들에게로 찾아다니며 술한 노력을 하여도 아직 아무런 기약이 없이 세월만 무시로 흐르고 있다.

이제 얼마후면 때서운 엄동이 찾아들테니 더이상 기다릴 수 없고 방관만 할 수 없어 우리 수배자 가족들은 양심적인 종교지도자, 각계 각층의 민주단체 앞에 1998년 10월 16일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를 결성하고 자식들(수배자)은 삭발로써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 열기와 결의를 모아 수배해제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같은 항변을 현 정부에 보낸다.

첫째, 김영삼 정권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현 정부가 안다면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해결해야한다. 96년 연세대 사건, 97년 출범식 문제 등을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학생운동의 명예를 회복해주어야 한다.

둘째, 5.18 광주학살 주범들은 권좌에서 국민을 속여 부정축재까지 저질렀음에도 흥정하듯 사면복권 시키고 진작 학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줘야할 양심수들을 아직도 감옥에 있고, 수배자들은 기약없이 길거리를 헤매게 하여 가족들이 더 이상 아간장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셋째, 대학이 있는 한 학생단체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니 탈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준법서약서는 양심수들의 자존심과 양심을 짓밟는 처사로서 빠른 시일내에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국민의 정부답게 국민화합을 위한 그릇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젊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유병문의 아버지(유철근) 씀.



# "지나온 길, 가야 할 길"

아직은 가야할 길 멀다지만  
쓴 눈물 흘린 후 환히 웃던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사람과 투쟁속에서  
사람을 얻어간다면  
우리 끝내 이기리라 믿습니다

■ 유병문의 '눈물만큼 많은 사랑을 위하여' 중





# 승리를 향한 108일의 대장정!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

누가 우리 운명의 앞길을 대신 열어주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수배해제는 수배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결단이며 이 투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 투쟁의 목표



투쟁의 목표와 수위를 과학적으로 정하는 것은 그 투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주관적 의욕만 내세워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하거나 객관적 조건만을 탓하며 실리적 목표에 국한된다면 우리들의 투쟁은 우여곡절과 편향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조계사 농성에 돌입하며 투쟁의 목표와 수위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 수 차례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중심으로 수배해제 문제를 결합시키지는 의견도 있었고 수배해제 투쟁을 통해 학생운동을 정리하거나 신변문제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수 차례의 토론과정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정확하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수위를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들은 정치수배해제를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쟁취목표로 하고 양심수 전원석방과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함께 쟁취하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5기 한총련에 대한 법원의 이적규정을 법리적으로 재검토하고 6기에 대해서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초법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므로 시급히 철폐되어야 함을 선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내용은 조계사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우리들이 발표한 8월10일자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 투쟁단 활동

### 1) 대중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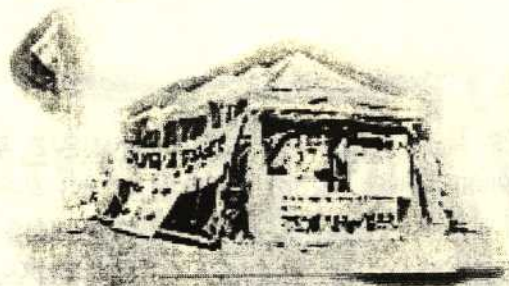
조계사 거점농성, 10만명 서명운동, 집회, 삭발식, 문화제, 후원주점 등을 통해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에 대중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냈다.

조계사 거점농성 - 73명의 김영삼 정권시절의 학생운동 수배자중 8명의 수배자들이 상징적인 농성을 진행함으로써 국민들과 운동세력, 정치권에 정치수배문제를 알렸다. 농성기간동안 108배 용맹정진, 불교계의 지지 지원, 절도있는 생활을 진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상징적인 투쟁거점을 확보했다.

10만명 서명운동 - 각 학교 후원회와 부모님, 친지, 이웃들에게 서명을 꾸준히 진행하여 대중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냈다.

집회, 문화제, 후원주점, 삭발식 등을 진행하여 대중들의 지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투쟁으로 표출하여 대중여론을 증폭시키고 정치권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이 모든 활동은 8명의 조계사 농성단과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수배자가족협의회(수가협), 후원회 사람들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민가협,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등의 사회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연대 하에 이루어 졌다.



## 2) 언론사업

국민대중들과 학생대중들의 폭넓은 지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쳤다. TV, 라디오, 일간지, 불교신문과 불교방송, 주간지, 월간지, 대학신문, 학교방송국, 교지, 컴퓨터 통신 등에 대한 취재요청과 투고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또한 중요시기에 기자회견을 적절하게 진행하여 우리 투쟁의 중간총화, 향후투쟁의 방향 등을 빠르게 알려내고 주요사안에 대한 성명서를 시기적절하게 발표하였다. 특히 6년 수배생활의 애환과 수배일기를 담은 시집, 농성장에서의 진지한 생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언론사업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손숙-김승현의 여성시대, 광주CBS, 불교방송, 한겨레, 경향, 문화일보, 법보신문, 한겨레 21, 뉴스 플러스, 월간 말, 길, 신동아, 시사저널, 레이디 경향, 50여개 대학 학보, 20여개대학 교지, 진보적인 통신공간등에 조계사 농성투쟁 소식과 수배자의 애환, 부모님들의 고통,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 수배해제의 정당성등이 폭넓게 홍보되었다.

이와 함께 한겨레신문 광고란에 각 학교 후원회, 부모님, 조계사 농성단의 이름으로 대형광고, 소형광고등이 꾸준히 게재되었다. 또한 주요행사나 추석 등을 이용하여 5만부 신문 발간, 유인물 배포, 플래카드 내걸기 등을 진행하였다.

## 3) 정부당국과 대화

새정치 국민회의, 청와대, 법무부, 검찰측에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고 진관스님, 함세웅 신부님, 김승훈 신부님, 홍근수 목사님, 김상근 목사님, 이덕우 변호사님, 오영식 2기 전대협 의장님, 김재용 1기 한총련 의장님 등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정부당국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여야 정당인중에서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들의 활동 자료를 전달하여 수배해제의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가협, 민가협 부모님들이 자필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접수하고 국민회의, 법무부 등을 방문하여 수배해제를 촉구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의 조계사 방문을 추진하고 자필서명을 받았으며 엠네스티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한화갑 국민회의 원내총무로부터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

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당내논의를 거쳐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로 부터는 고압적이고 수구공안 논리가 역력한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와 항의표시로 삭발을 진행하였다.

민족민주운동 단체와 교수님, 종교인, 친지 등으로부터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청와대와 국민회의, 법무부 등에 제출하고 향후 대통령 면담 대표단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함께 인권 요구안을 작성하여 대통령 면담대표단을 통해 일괄 타결하여 실질적인 수배해제 양심수 석방의 성과를 쟁취하고자 한다.

## 4) 농성생활

농성생활을 잘 진행하여 안정적인 투쟁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조계사와 조계종 총무원, 불교단체의 암묵적 묵인과 지지, 연대투쟁을 이끌어내고 조계사 신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조심스럽고 꾸준히 진행했다. 그 뿐만 아니라 조계사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과도 한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했다. 안정적인 농성생활 속에서 체력단련과 건강유지, 학습토론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건강한 농성투쟁을 진행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을 조계사 스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였으며 부모님들과 함께 조계종 사회부장 스님을 면담하여 지지를 받았다. 108배 용맹정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진행하여 불교신도들로부터 지지와 대견하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 조계사에 일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에게 예절바르게 대하고 시시때때로 일을 도와드려 이제는 한가족같이 지낸다.

매일아침 국선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책읽기와 강연회,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사상적 양식을 쌓아가고 있다. 이제 조계사는 우리들의 투쟁 거점이자 고난받는 모든 이들의 보금자리로 정착되고 있다.

## 특별 흐름

### 1) 1차 시기(8월 9일-8월 22일): 준비기



8.15 특별 사면을 전후하여 양심수 석방 문제 뿐 아니라 정치수배해제 문제가 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 농성장소를 안정화시키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언론과 정치권에 알렸다. 부모님 모임과 각 학교 후원회 조직화에 박차를 가했다.

조계사 진입과 함께 8.15 특별 사면에서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만적인 8.15 특별 사면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8월 22일 정치수배해제와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들의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 2) 2차 시기(8월 22일-10월 16일): 상승기

8월 22일 집회를 기점으로 10만명 서명운동, 후원주점, 문화제, 신문 5만부 발간 등의 대중 사업을 통크게 진행하여 대중적 영향력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시기였다. 대중투쟁의 파장이 커지자 언론기관들의 취재가 빈번해지고 정치권과의 대화가 지속화되었다. 수배자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수배자 가족 협의회라는 조직결성으로 발전하였다.

5만명의 서명, 1000명이상이 참여한 동국대 후원주점, 700여명이 참여한 시와 노래의 밤 등으로 각계 사회단체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았다. 또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인권문제의 중요사안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였고 이에 수가협, 민가협, 대책위 어르신들이 새정치 국민회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하였다.

서명운동을 진행하는데서 각 대학 양심수·수배자 후원회는 양심수·수배자 후원 주점, 다양한 선전홍보 활동 등을 통해 '양심수', '정치수배', '인권' 문제를 학원에서 여론화시켜 냈다. 후원회에서는 이러한 대중 선전의식화 작업 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 투쟁, 교수님 탄원 운동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펼쳤다. 특히, 몇 안되는 일꾼이 모여 학내 구속자에 대한 상황을 통크게 알려내고 꾸준히 후원 사업을 펼친 송실대의 경우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또한 PC통신 나우누리, 하이텔, 참세상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선전사업을 벌여내어 정치수배해제 농성투쟁의 활동을 넓히고 통신,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500여명의 서명동참을 이끌어 내었다.

조계사 농성단은 수배자 가족분들과 각 대학 총·단체학생회와 후원회 단위의 피땀이 담긴 서명용지를 정부를 비롯한 검찰, 법무부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서명운동을 총화할 계획이다. 지금도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양심수 군문제 해결',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 이적단체규정철폐', '준법서약서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서명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조계사농성단의 서명은 마무리 짓지만 우리가 내걸었던 내용은 계속 여러 서명운동에 포함되어 진행할 것이다.

2차시기 투쟁으로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이 10월-12월 인권정국을 주동적으로 개척하는 선봉장, 중심거점이 되었다.

## 3) 3차 시기(10월 16일-12월): 결실기

12월 10일을 양심수 전원 석방의 날로 선포하고 꾸준하고 주동적인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12월 특별사면과 전향적 인권조치를 이끌어 내는 시기이다.

인권 요구안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면담 대표단을 부모님을 중심으로 각계의 저명인사들로 꾸리고 투쟁을 통해 이를 관철시켜 낼 것이다.

1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요구안, 대통령 면담 대표단 구성, 대통령 결단 촉구, 향후 투쟁 계획을 공개할 것이다. 또한 11월 21일 국회앞 인권대회를 힘차게 진행하여 대중적 결의를 드높일 것이다. 12월 1일부터 10일 사이를 총력투쟁 주간으로 설정하여 부모님, 수배자, 양심수들이 상징적이며 완강한 투쟁을 벌여 수배해제를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 총괄평가



100여일이 넘는 장기농성 투쟁을 통해 우리들은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양심수 군문제 해결,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제도 철폐 등의 인권의 핵심 사안들을 전국민적으로 부각 시켰다. 전체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10월-12월 인권정국을 주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정치-조직적 힘을 마련하는데서 우리 조계사 농성단이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투쟁속에서 단결을 모색하고 한번 시작한 투쟁은 끈질기게 밀고나가 작은 승리라도 기필코 쟁취하는 투쟁의 모범을 만들고자 한다. 끈질긴 투쟁 속에 승리와 희망을 창조하는 조계사 농성단의 투쟁은 현시기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부모님들이 수가협, 한학협 등의 조직으로 결집시켜 운동의 소중한 동력으로 만들어 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조계사를 명동성당에 이은 제2의 투쟁의 성지로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투쟁거점을 확보하는 물질적 성과를 얻어냈다.

투쟁 속에서 우리들은 운동가로 자신의 삶을 총화하고 더욱 튼튼한 애국자로 자신을 성장 시켰다. 수배해제 이후 사회 곳곳에서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전진을 위한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한다.

수배해제



# 농성단과 법무부의 대화

## < 의 의 >

폭넓은 연대전선을 형성하여 민족민주운동권의 단결에 복무한다. 그리고 각계 각층 인사들의 협조로 수배해제의 정치적 여론을 광범위하게 조성하고 정치수배 해제라는 우리의 구체적 요구안을 관철시킨다.

## < 일 지 >

### 8 월

- 12일 진관 스님,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홍근수 목사, 오종렬 전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의장 등이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 한화갑 원내총무, 검찰총장과의 면담진행
- 21일 유시춘(작가), 오영식(전대협 2기의장), 김재용(한총련 1기의장) 농성장 방문
- 24일 이명식(국민회의 인권국장), 유시춘, 오영식, 김재용 농성장 방문. 대화창구 개설
- 29일 유시춘, 이명식(국민회의 인권국장), 진관스님, 오영식(전대협 2기의장), 김재용(한총련 1기의장) 선배님들이 수배해제문제에 관한 대화 가짐

▶ 제안내용-) 현 정부를 인정하고 그 정책을 지지, 한총련을 비판하고 자기 반성, 준법외지 표명하면 구속 최소의 조건으로 타결할 수 있다.

▶ 답 변-) 한총련에 대한 언급은 어떤 식으로든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잠정 협상 결렬 ---

### 9 월

- 4일 대책위 구성(진관스님, 홍근수 목사,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이덕우 변호사, 오영식 전의장, 김재용 전의장)
- 10일 이후, 법무부와 국민회의 인권위원회로 정치수배 해제에 대한 입장 확인 요청 진행
- 17일 대책위(진관스님, 함세웅 신부, 오영식 전의장)와 이기문 인권위원장과 면담

- 18일 박상천, 이기문, 공안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수배자 문제해결'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 확인

▶ 법무부 안-) 반성을 전제로 한총련 탈퇴 혹은 한총련 무가입과 준법서약 등의 내용을 명시에 관계 없이 표명하면 선별처리 해주겠다. 선별의 기준은 한총련 이외의 조직사건 관련자와 폭력사건의 직접당사자, 이적표면물 제작 배포 혐의자는 제외한다. 단 폭력사건과 이적표면물의 경우는 신중성을 발휘한다.

▶ 답 변-) 박상천 장관의 발언은 과거 수구 공안논리와 다를것이 없는 고압적인 자세로서 정치수배 해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고 판단

--- 거 부 ---

- 24일 수배자부모님, 민가협어머님, 도관 스님, 김재용(한총련1기의장) 등이 법무부를 방문하여 박영관 검찰 3과장을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 제출과 우리의 조건을 역으로 제안 함

▶ 우리의 조건-) 자진출두 기한을 정하고 기간내에 출두하는 자에게는 전원 불구속으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고 합의한 내용을 개인 진술서에 작성하면 전원 기소유예로 처리할 것을 제안

---법무부 기조입장 고수---

### 10 월

- 16일 수가협과 민가협 상임의장, 대책위분들(진관 스님, 이덕우 변호사, 오영식 전의장, 김재용 전의장)이 불교계(사회부장 스님)면담, 한화갑(국민회의 원내총무)면담,
- ▶ 원내총무발언 요지-) 수배해제 문제를 당내 토론에 부치고 결과를 주례보고 때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 20일 유가협과 추모단체 연대회의에서 청와대 대통령 면담시에 본 농성단이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직접 제출하고 수배해제를 촉구

## < 향 후 계 획 >

11월-12월 대통령 면담 추진위를 구성하고 인권요구안을 정비하여 12월초 인권주간에 대통령과 면담하여 실질적 성과를 쟁취한다.

수배해제

대중집회

8월 22일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 대회가 8월 22일 조계사에서 전국연합, 민가협 의 공동 주최로 300여명의 시민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3.13 특사와 8.15 특사 속에서 양심수 문제와 정치수배 문제가 완전 해결되기를 바랬으나 이것은 바람만으로 끝났다. 비리주범과 헌정 파괴범을 풀어주기 위해 양심수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기만적 8.15특사는 우리에게 분노를 안겨 주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모아지는 시점에서 각계 각층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수배문제를 알리고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투쟁의 첫 나팔을 드높였다.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 정치수배 문제가 양심수 문제와 동등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수배해제 농성을 전국화시키고 이 여론적 힘에 기초해서 과거청산, 인권신장의 흐름 속에서 수배문제를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씨앗이 되는 집회였다. 무엇보다 흠뻑 젖어 거리를 헤매던 수배자들이 이제 스스로가 주인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대중집회

8월 13일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하루 주점이 천 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참가로 성대해 열린 후, 13일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8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 행사로 조계사는 민주와 인권의 새로운 성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수배문제는 완연히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자리는 수배자 자식을 둔 부모님들, 후원회 사람들 그리고 수배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였다. 노래단 희망새, 꽃다지, 이지상, 김원중, 송시현과 시인 신동호, 김형수씨가 참가한 이 행사는 감동 있는 집체적 문화판이었다. 조계사 총무스님의 편지, 부모님의 편지 낭독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했고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발언문은 절절한 눈물로 읽혀 모두에게 뜨거운 격정과 감동으로 남았다.

행사가 끝날 무렵에 진행된 촛불행진은 조건 없는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염원하였는데 그것은 가을밤의 장관이었다. 이렇게 하나 하나가 모여 열이 되고 백이 되어 수배해제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대중집회

10월 16일



민중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가 10월 16일 열렸다. 수기협 결성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행사는 수기협 결성을 1부 행사로 삼았다.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 시던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수배가 부당하고 새 정부 아래에서는 당연히 풀려야한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는 부모님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부당성과 현실에서의 민주와 인권 탄압을 꼬집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잘못된 것임을 소리 높여 외쳤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한총련이 쓰고 있는 이적단체의 오명, 그리고 양산될 수밖에 없는 정치수배와 양심수 문제는 이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70여일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수배해제에 대한 책임있는 언급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현 정부와 법무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분노의 심정을 담아 부모님이 앞에서 삭발을 했다. 그것은 조국을 너무도 사랑한 죄로 쫓겨야 하는 이 땅의 청년학생의 운명에 대한 설움이었고 또한 조국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가혹한 시련에 대한 분노였으며 이제 엄동설한을 이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장기농성에 대한 결연한 의지였다. 우리는 투쟁의 방향을 선명히 하고 보다 결연하게 투쟁하기 위해 깃발을 올린 것이다.

수배해제

건국 50주년 8.15 맞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 농성단

# 기자회견문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오랜 기간 수배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를 8.15 특별사면에서 해제해 주실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유래 없는 물 피해로 망연자실해 있을 수재민들의 아픔에 팔을 걷어 부치고 복구활동에 나서야 함에도 수배된 몸으로 소리 없이 거리에서 가슴아파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나라사랑 민중사랑의 열정으로 살다 수배 받은 저희들이기에 더욱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은 일제 해방 이후 첫 정권교체를 베푼 감격과 기대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배자들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이 나라를 망쳤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이에 저항하다 수배 받은 양심적인 수배자들이 아직까지 거리를 헤매야 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분단과 독재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제 2의 건국 이념을 세워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의 큰길을 열어나가시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기대가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반드시 이뤄져 부모님들에게는 밝은 웃음을 선사하고 국민들에게는 현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1. 김영삼 정권 시절에 양산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를 해제해 주십시오.

김영삼 정권도 출범 초기에 3백 여명의 정치수배자들을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수배해제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압니다. 최초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군대문제 해결의 상식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강위원, 정명기, 정태홍 한총련 전임 의장을 비롯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사면과 석방을 요구합니다.

4.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은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6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6기 대의원 검거는 초법적인 인권탄압이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한총련은 부족하지만 백만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의 대표 조직입니다. 학생운동이 울곧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탄압이 아니라 토론과 행동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학생운동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대화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5. 국가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의 새 시대에 맞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 혹은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1998년 8월 10일

건국 50주년 8.15 맞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 농성단

대표:오창규(吳昌圭) 019-204-8518/ FAX 723-9120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 기자회견문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들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10일째입니다.

8.15 특별사면에 기대를 걸고 여러 활동을 벌여 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각계인사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배해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배자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8.15 특별사면에 조계사 농성단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비리 연루자나 헌정질서 파괴범들의 대폭적인 사면, 복권조치와는 달리 사회민주화투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라는 조건을 강요하더니 결국 455명중 94명만이 석방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 대화합은 양심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국민들과 하는 것이지 비리 권력자들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김영삼정권도 출범초기에 수배자들에게 대한 해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특히 정치 수배자들은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김영삼정권에 대항하다 억울한 수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루 빨리 수배해제가 단행되길 바라며 농성단은 2단계 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2단계 투쟁은 다양한 협상통로를 거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서명운동과 대중집회 탄원작업 등 다양한 대 시민 선전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 8월 9일 농성을 시작한 수배자들은

- ▲ 10일 8.15 사면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 ▲ 14일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광고를 일간지 하단 전면(한겨레 신문 9면)에 게재했고
- ▲ 조계사를 중심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 ▲ 40여명에 이르는 수배자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에 여러 단체와 인사들이 지지해주셨습니다.

▲ 12일 진관 스님, 권오현 민가협 회장, 홍근수 목사, 오종렬 전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의장 등이 새정치 국민의회의 정관환 사무총장, 한 화갑 원내총무, 김찰청장을 면담 한 바 있으며

▲ 전국연합, 서울연합, 민가협, 양심수 군대 문제를 위한 모임, 전대협 동우회, 전불련, 실천승가회, 대불련, 새불교 전국승가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전남대 총학생회, 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서울농대 학생회 등이 지지 방문해 농성단과 함께 투쟁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목사 / 성동광진민주시민회 위원장 이 중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중현 / 성남시 의회 의원 김 미희 / 서울연합 집행위원장 박 기학 /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 의장 전 상봉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사무국장 정유진 / 북미주 조국통일 동포회의 집행위원장 최관호 님등 많은 분들이 수배해제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 농성자 7명의 가족들이 수배해제를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가협이 주최하는 목요 집회

에 참석해 수배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농성단과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신문 의견란 각학교 후원회 등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각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평택 농민회, 나주약국, 청년회, 시민단체 등이 농성장을 찾아 투쟁기금도 기탁해 주셨습니다.

▲ 7명의 가족 외에도 다른 수배자들의 부모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주셔서 농성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농성단은 8.15까지 1차투쟁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에서 더욱 힘찬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오는 22일 2시 조계사에서 '정치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 단체의 연대사와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인권신장에 관한 연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명의 농성자들이 삭발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8.15사면조치를 규탄하며 계속해서 양심수 석방·수배해제·양심수 군대문제해결을 위해 연대사업을 강화해 인권신장을 위한 공동행보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농성자별로 후원회를 만들어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양심수 군대문제 위한 서명운동을 수배자가 있는 학교와 시내에서 벌이고자 합니다. 서명운동과 모금을 하여 한겨레 신문 의견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수배해제를 위한 후원회에서는 일일 주점이나 문화행사, 홍보, 모금 활동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운동 선배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대화할 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부족한 농성단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1998년 8월 18일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 농성단

대표:오장규(吳昌圭) 019-204-8518/ FAX 723-9120

## 8 · 15특별사면에 대한 규탄 성명서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8·15특별사면은 김대중정권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조치였습니다. 특히 각계인사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배해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언급도 없으니 현정권이 정말 국민의 정부인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말많은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결국 시국사범은 부정 부패 비리자와 역사의 대 죄인들의 사면 잔치에 들러리 노릇만 실컷하고 국민의 정부에게마저 외면 당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8·15 사면대상에 포함된 양심수들도 가석방, 형 집행 정지에 그쳐 양심수들의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리연루자와 헌정 질서 파괴 범들에 대해서는 전원 잔형 면제나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등을 통해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인지 부패한 권력자들의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 전체 양심수 455명중 94명만 석방하고 ▲그것도 시국사범에게만 비인도적인 준법서약서 제출을 강요했으며 ▲한보사건이나 전·노 부정축재 관련자와 5.18, 12.12같은 반역사적인 정치인만 실질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한 점과 ▲18년 이상 복역중인 비 전향 장기수 17명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기만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를 오늘같이 추락시킨 주범인 부정축재자들은 어떤 조건도 없이 사면복권까지 시켜주고 사회민주화투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양심수들은 구차한 조건을 내걸더니 결국은 94명만 석방하는데 그쳤습니다.

박 상천 법무부장관은 헌정파괴·부정 축재 범들의 사면, 복권조치의 이유를 "지난해 석방 이후 근신해왔고 이들보다 죄상이 중한 전·노 씨가 이미 사면·복권되었기 때문에 이들만 복권시키지 않는 것이 '동일 사건에 있어서의 형평'에 어긋나고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 대화합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 화합은 양심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국민들과 해야 하는 것이지 비리 권력자들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외세와 소수 권력자들만을 위한 정권이 나라를 오늘에 이르게 만들었는데도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권마저도 이전 정권과 다름없이 양심수 석방마저 외면한다면 역대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양심수 석방 등 인권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결국 보이는 건 권력자 들 뿐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인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양심수들의 군대 문제 해결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 시국관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은 8.15특별사면에 크게 분노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배해제를 위해 끊임없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건국 50년 8.15일

김영삼 정권 시절 시국관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전화 732-6880~1/FAX 582-4178

문서번호: 농성단 제 98-4-13

시행일자: 1998. 11. 17

수 신: 각 단체

참 조: 실무자님

제 목: "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양심수 문제 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대회" 참가요청 건

1.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한길을 걸어오신 귀 단체의 회장님 이하 회원님께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2. 추모사업 연대회의, 전국연합(서울연합, 인천연합), 조계사 농성단, 민교협, 국민승리 21 등에서 공동으로오는 11월 21일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인권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일 국민회의 당사앞 인권대회는 인권문제 전반이 폭넓게 다루어 지고 위 단체외에도 각계 민주단체들이 공동 주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21일 인권대회를 성대히 치루어 내고자 합니다.

3. 이에 귀 단체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 1) 11월 21일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열리는 인권대회에 귀단체 회원들의 대중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 2) "열사명예 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양심수 문제 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대회"에 귀 단체가 공동주최 단체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내용: 11월 21일 인권대회의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1998년 11월 21일(토)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인권대회 준비위원회(전국연합, 유가협 외 여러 민주단체)

후원: 고용, 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 자료 별첨 : 인권대회 기획안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단장 오창규

###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제 목: 농성 100일을 맞는 수배해제 농성단 취재 요청

일 자: 11월 13일

발 신: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8인 대표 오창규 / 전화 732-6880, 1 017-205-8518 )

취재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농성단이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인 지 11월 16일로 100계를 맞습니다.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의 수배생활 끝에 자리잡은 허름한 보금자리, 실낱같은 희망으로 등지를 틀었지만 그 또한 수배생활처럼 끝이 보이지 않은 길인 듯합니다. 학생운동 최장기 수배자(오창규), 농성생활중에 시집(양수리에서, 시와사회)을 낸 풋내기 시인(유병문), 부모님의 절절한 편지가 MBC라디오 여성시대에 방영돼 경북 영천을 떠들썩거리게 했던 청년(이영수) 등 8명이 김영삼정권시절 수배자 67명을 대표해 수배해제 투쟁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 정치권과 대화 시도 \* 대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전과 대중집회 \* 언론 홍보 \*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서 제출 \* 수배자 가족협의회 발족 등을 전개했습니다.

농성단은 매일 5시 30분에 일어나 108배 용맹정진, 6시 조계사 대웅전 마당 청소, 6시 20분 국선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병문(동국대 불교학과 92)을 제외하고 불자가 아니지만 수배해제를 염원하며 진행했던 108배 용맹정진은 조계사 불자님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학수고대하며 숨죽이며 지켜왔던 97년 대통령 선거 개표현황. 마치 수배해제가 된 듯 기뻐했으나 우리들의 희망과는 달리 3.13, 8.15 특별사면에 수배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니 정권교체의 참 의미를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땅의 양심세력인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인권대통령이라 자처하고 인권법을 만든다고 하니 '국민의 정부'가 가는 개혁의 길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진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양심세력을 가둬놓고 '개혁'과 '인권' 하는 외치는 것은 어불성실입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운동세력을 빨갱이로 몰아세웠던 김영삼정권의 오만과 오판을 국민의 '정부'는 제대로 되돌려 놔야 할 것입니다.

살인자, 부정축재자 전두환·노태우전직 대통령도 풀려난 마당에 양심수·수배자들을 가둬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독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사상·출판·결사·언론의 자유를 가로막아 양산된 수많은 희생자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대국민적인 화합은 권력자와 부정축재자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땅의 양심세력과 해야 할 것입니다.

농성단은 불구속수사에 기소유예를 약속한다면 자진출두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총련 탈퇴의지와 준비의지를 수배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구 정권과 다르지 않은 교압적인 수구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농성 108일째인 11월 24일, 농성단원 8인이 3000배를 하며 수배해제를 염원, 촉구하는 한편 부처님의 자비를 바라고자 합니다. 11월 24일 새벽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있을 예불에 참가합니다. 5시 30분경에 좌선을 한 후 격려사를 듣고 농성단을 대표해 3000배에 임하는 마음을 전하며 행사가 시작됩니다. 1000배(약 2시간 소요)때마다 잠시 휴식을 갖고 1시 30분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휴식을 가진 후 2시경에 부모님, 사회단체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108일을 기념하는 약식행사를 30분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사회단체>

###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탄원서

김대중 대통령님께. 김영삼 정권에 의한 학생정치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김대중 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 경제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중에 큰 물난리를 맞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와 독단은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파탄의 지경에 몰아넣어 온 사회를 파국에 치달게 했습니다. 하여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에 분노했고 저항했습니다. 야당 정치지도자, 종교 지도자, 재야 단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은 그들이 가진 지혜와 힘, 특성을 모두 살려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 국민들의 노력으로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뤄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올해는 건국 50주년이 되는 해로 묵은 것을 털고 새것을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시기 우리 국민들은 분명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은 과거의 정치현실에서 발생한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양심수 문제의 완전 해결을 의미합니다. 양심수 문제의 완전해결이란 구속된 양심수들을 대폭적으로 석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살없는 감옥에 갇혀 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정치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수배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8.15특사를 바라보면 과연 '국민의 정부'다운 조처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김영삼 정권 초기에도 310여명이나 되는 정치수배자들을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8.15 특사에서는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5.18 내란 음모 가담자와 부정부패·비리범등의 사면 폭에 비해 양심수 사면은 극히 협소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건국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의 8.15특사에 온갖 기대와 열망을 안고 있었던 수 많은 양심수들과 수배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국민들은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분단과 독재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제2의 건국이념을 세워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의 새 시대를 열어 가시려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력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맞게 8.15 특사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어 전(前) 정권 시절에 수배 받은 학생들의 수배를 과감히 해제하여 무거운 멍에를 짊어 지고 있을 부모들에게는 밝은 웃음을 선사하고 국민들에게는 현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조계사에서는 7명의 수배자들이 8월 9일부터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배해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 조계사 농성이 빨리 마무리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                    직책:                    성명:                    (인)

### [ 참/가/단/체 ]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홍근수 /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 민주주의 민족통일 울산연합 남구지역위원장 김진석 / 서울연합 신바람 의장 진용조 /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중원지부 지부장 이경수 /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수정지부 지부장 김찬수 /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산하 성남터사랑 청년회 부회장 김봉현, 사무국장 허근영 /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김국래 /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자주통일위원장 정동석 / 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 / 성동광진민주시민회 위원장 이종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중현 / 성남시의회 의원 김미희 / 민주주의 민족통일 서울연합 집행위원장 박기학 /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사무국장 정유진 / 북미주 조국통일 동포회의 집행위원장 최관호 / 인천연합 최지혜 / 카톨릭 청년단체 사무국장 김상용 / 서울민주청년단체 협의회(서청협) 의장 전상봉 / 용인청년일꾼들 사무국장 신용욱 / 장기수후원회 집행위원장 임현 / 성남청년회 회장 남연호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무국장 김판테, 유정섭, 유한경 / 성남청년회 총무부장 김태욱 / 경기동부지역 목재기구공 노동조합 위원장 한영수 / 청년대학 사무처장 김성이 / 구로청년회 부회장 유선희 / 구로사랑민주협 의회 의장 이상규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의장 전동균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회장 배강원 /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일용, 사업국차장 강영호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 임종철, 사업국장 송미옥 / 참된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회장 이찬구 / 기독교청년의료인회 회장 송일수 님

< 학 계 >

### 탄 원 서

金大中大統領님 安寧하십니까?  
IMF 寒波를 克服하고 經濟回復을 實現하시고자 또한 이 나라의 眞正한 民主改革의 기틀을 세워 보시고자 國事에 얼마나 勞苦가 많으십니까?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저희 教授들은 金大統領님의 改革政策에 힘껏 助力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50년만의 政權交替는 많은 사람들에게 期待와 希望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經濟發展과 民主主義의 並行發展' 이라는 슬로건에 가장 많은 期待를 갖고 있습니다.

民主主義를 實現하고자 하는 政權이라면 반드시 指向해야할 內容중의 하나가 人權問題의 解決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消耗的인 冷戰 論理 보다는 각 나라와 民族이 自身들의 경제적 利益을 위해서 無限競爭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世界史的 潮流에 발맞추어 冷戰시대의 歷史的 遺物들을 과감히 일소하고 國民的 和合을 이끌어내어 全國民的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狀況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 백 명의 良心囚와 學生 手配者들이 苦痛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全南大學校만 하더라도 現在 67명의 學生 手配者들이 政權交替以後에도 正常的인 삶을 剝奪당한 채 힘겨운 生活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깥 世上에서도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스승된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前職 大統領도 國民的 和合이란 命分으로 特別히 赦免되었고 지난 3.13 特赦 때도 550만 명이 넘는 一般囚들이 赦免 復權되어 政權交替하에서 새로운 삶을 設計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유독 良心囚, 政治 手配者들에게만 인색하다면 그것은 衡平성의 原則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그들을 집으로 돌려 보낼수셨으면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품었던 자신들의 양심과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젊은이들의 용기는 독려하고 고무해 줄지언정 짓밟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學生들에게는 젊음과 未來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현실과 타협해 버리는 지나치게 조숙한 젊은이 보다는 어디서도 자신의 신념과 긍지를 꺾이지 지켜가는 젊은이의 모습일 훨씬 더 청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역사를 바로 세워보고자 했던 이들 젊은이들의 순수한 충정을 가벼이 여기시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보아 저래의 동]량으로 자리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십시오.

金大中大統領님!  
김대통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진정한 개혁이라면 저희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교수들은 힘껏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제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관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署名者:                    (인)

[ 참/ 가/ 명/ 단 ]

대학 교수

전남대 사학과 교수 겸 전남대 평의회 회장 이상식
전남대 학생부처장 천득염
전남대 인문대 사학과 이강래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전남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김종술
전남대 법과대학 정환담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주춘기
서울대학교 조성일
서울대학교 김경옥 외 41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지희 임후성 김경원 김성호 조희주 정해숙 장취국 정연국 박형국 오경영 강장원 김정빈 한송임
박종근 조문이 정진오 나연주 김종훈 안남석 최영천 황상석 나상주 최승권 김재호 문광혜 신 균
정진환 장춘기 강대식 안태주 조기욱 김만석 소기영 김병식 박충환 박석홍 김수경 이동룡 정경식
허만진 박용석 강순희 김홍수 이기환 김종돈 홍진호 김성섭 정선우 김대오 윤보연 장범호 차창도
정철표 김선호 고익종 송선중 유양식 김택중 박재성 박길우 이효영 박찬준 윤광잠 강공덕 양도영
이임범 윤준서 정병표 김 형 이기범 김재호 이영희 조순애 이부덕 이경희 박재상 박정화 김 현
정애경 손세숙 장진화 김명문 장우연 정영훈 정애순 이용환 박미서 정근미 김말순 김정렬 권순명
하민호 김기덕 정기훈 고혜정 유 정 이규삼 지미희 최정현 정민화 김효진 이화연 김호성 강성자
임재한 김인영 김 일 윤기문 신성호 박재환 김성재 고수문 도성훈 황진도 김방식 이영남 조중현
박재동 여운오 용현정 권태덕 이민숙 안준화 박호순 임성재 박한경 김종석 차영오 신승태 김중현
정소영 김창환 김명대 이교열 조용숙 양귀순 조훈준 조원배 송요권 최광락 송길호 노권우 윤경호
이금래 장우영 김중훈 신승철 김용태 강옥임 서민태 김태수 서진국 임성철 이종도 전병호 류재운
전남일 박병섭 채종민 정동주 이춘태 박경숙 임원택 김 목 김옥례 정진이 이장규 진영조 한성찬
김원호 남시돈 김상규 이광숙 심은희 홍광숙 김은형 김승만 김명호 김쌍규 이향춘 이현숙 이기순
조미영 이석옥 민시현 주경숙 이상렬 양도길 이경옥 서옥수 우병택 김익선 김영희 장승완 이영규
임병조 임용렬 전용진 이동섭 임명규 조영옥 류호현 김상희 김용주 이재화 진명찬 정은숙 나영성
김명희 이상준 신현정 하은영 김인미 김인복 김한명 황규순 차상철 이복순 정정환 박재훈 윤성호
송대현 오성숙 이용우 윤철수 이남일 류근란 최윤호 이은경 윤종렬 김필태 류영희 변태석 이석우
전 탄 장재화 심성용 이혜석 정도원 천재곤 권수범 김우경 박외곤 조창익 김지명 하동원 김태균
염승훈 김정옥 서재준 배미영 주경진 장필권 서병길 서금렬 신준식 정남균 박종택 박진희 한규희
이지현 김상철 구규석 정만진 김병화 정택근 김형섭 강현구 조순련 한유미 우혜정 권재중 장명재
이의호 이지연 이건향 박채형 황수영 서미경 이복화 하대열 김상배 배성완 이미영 유춘재 박지희
제갈현소

수배자 가족 및 친지 탄원서 목록

Table with 10 columns listing names of family and friends of detainees. Names are arranged in vertical columns across the page.

勇敢に韓総連の皆さんの闘いに  
 深い敬意を表します。  
 其に、闘いましょう！

日米のアジア関係に反対し  
 アジア人民の連帯を推進する 日本連帯会議  
 (AWC-JAPAN).  
 1998.11.7.

永尾 尚子  
 NAGAYA SONOMI

椎 名 隆  
 SHIINA TAKASHI

AWC (비밀번호 020474) 회원 서명

No one should be imprisoned because  
 of their political opinions.

*[Handwritten signatures]*

Oscar Stenström,  
 Social Democratic Youth of Sweden  
 Anders Lindberg  
 Social Democratic Youth of  
 Sweden.

Editor, Tvärdrag  
 Social Democratic Youth

스웨덴 연대 청년위원회의 위원장 · 국제 담당 · 편집장 서명 of Sweden

10/9/98

No one should be prosecuted and  
 jailed for the non-violent expression  
 of political beliefs.  
 In solidarity with the students  
 of South Korea who have struggle  
 throughout the modern history  
 of this country for democracy &  
 human rights.

Gene Savé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Handwritten signature]*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서명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ir conscience - and  
the right to express and  
exercise it peacefully  
without persecution.

In solidarity,

Remy Mumbere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10 September 1998.

마음고생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김영삼정권하의 학생운동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요구합니다



IMF 한파에다 그칠 줄 모르는 물줄기로 이번 여름은 가뜰이나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비 피해로 수해를 입은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새 정권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시민 여러분처럼 저희들도 희망에 부풀어 3.1절 특별사면 때에 김대중 대통령의 수배 해제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권도 학생운동 수배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었기에... 하지만 김영삼 정권이 수배한 학생들, 이른바 학생정치수배자는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하고 낯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수배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8월 9일부터 조계사 대웅전앞 마당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힘찬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 김영삼 정권도 한 일입니다

7명의 수배자들이 모였습니다. 3.1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수배해제 조치를 직접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정권 출범 초기에 수배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정권은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양심수를 대거 석방하고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그들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도 한 일을 어떻게 된 일인지 김대중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독재와 항거하며 공권력 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인 김대중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에서 양심수들과 수배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조치를 취하는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 강남 사는 아주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빨갱이'라며 싫어하던 강남에 사시는 한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97년 대선 때 두 눈 딱 감고 2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양심수 석방 등 민주세력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입장까지 바꿔가며 수배해제를 위해 김대중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는 요즘 울상입니다.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 6년을 떠돌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기 서른 두 살 노총각 수배자가 있습니다. 93년도에 남총련의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수배를 받은 오창규씨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을 숨어살았습니다. 아니 정권에 항거했습니다. 죄인이 아니기에 김영삼 정권의 탄압을 피해 혼자 힘으로 떠돌았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든 연락을 끊고 살기를 6년.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이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장가도 가야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할 나이입니다.

무릇 수배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멀리서 눈물만 흘리는 불효자임을 감요받기 마련입니다. 어디서든 쫓긴다는 압박감에 의술 한 번 마음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연장을 위해 김영삼정권이 류어두었던 이 청년을 새 정권은 놓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농성으로 스님, 불자님들께 염려를 끼쳐 느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만큼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자님의 자비로 삼 번씩 사죄하기 바라며 저희들도 불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스님과 불자님들의 인성을 기원합니다.



조계사 농성단 회원들 격려하며 조계사 농성단 조계사 농성단 회원들 격려하며 조계사 농성단

# 한총련 수배자 8인 조계사 농성중 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등 요구



김영삼정권 때 수배된 학생운동 관련자 8명이 지난 8월 9일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가 오늘로 31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6년에 수배생활을 했던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씨를 비롯한 한총련 관련 수배자 8인은 수배자 전원의 수배해제와 양심수 전원석방, 양심수 군대문제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10일, 18일 기자회견 △14일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일간지(한겨레신문 14일자 9면)하단 전면광고 게재 △12일 전관선근, 권오현 민가협 회장, 홍근수 목사, 오종필 전 민주주의 민족통일 장추진단연합 의장 등이 새정치 국민회의 장광란 사무총장, 한화갑 원내총무, 김철정장 민담 △수배해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교수단원서 작성 △22일 조계사에서 '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3백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법적으로 공안당국에 출하는 수배자들이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김영삼정권도 93년에 3백여 명이 이르는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한 바가 있기에 진보적인 김대중정부가 수배해제를 해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기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수배정 비리의 주범이 되고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아무런 조건없이 사면 복권시켜 준 마당에 부정선거 관련에 대해 사과한 학생들의 수배해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억울하게 수배해제된 시대의 희생물이기에 과거 정권과 정권교체의 의미를 살려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오창규씨는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하던 김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배해제 모임을 만들어 서명

## 김영삼정권 시절 학생 정치수배자

지역	학교	성명	직책	
서울	동국대	260-3411	유영훈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장(96)) 김영희 (동아리연합회장(97))	
	경희대	961-0650	배필기 (서울대 의생(95))	
	한양대	290-0102	윤원희 (서울대 의생(95))	
	단국대	709-2282	이남희 (한총련 회원)	
	상명대	287-6261	양승민 (서북총련 조국통일비서(97))	
	경희대	360-3281	김희정 (서울대 학생일군)	
	덕성여대	901-8561	홍은희 (북부총련 연대위원)	
	장신여대	920-7348	최진희 (한총련 회원)	
	동덕여대	320-1440	이남준 (한총련 회원)	
	고려대	3280-1842	류준 (경희대 학생일군(97))	
	서강대	인도계	정성태 (학생일군(97))	
	건국대	450-3981	김동진, 최원희, 김내환 (학생일군)	
	경희대	0335-30-6511	김현준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장)	
	서울대	0031-280-2116	김재민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장) 이영수 (남대부 학생일군(97))	
경기	경희대	249-8601	안창호 (공대 학생일군(97))	
	연희대	032-770-8180	김종호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장(97)) 이정수 (공대 학생일군(97)) 홍준호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장(97))	
	인원대	032-750-5446	신순경 (동아리연합회장(97)) 최대성 (공대 학생일군(97)) 이민진 (생과대 학생일군(97)) 김현준 (경상대 학생일군(97))	
	경희대	0335-30-4152	이철환 (경기도농협중앙회(97)) 박재철 (한총련 중앙일군)	
	경희대	0335-30-4152	박재철 (한총련 중앙일군)	
	강남대	0331-283-2454	공병근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장(97))	
	경북대	053-950-6961	이정준 (한총련 중앙일군(97)) 최유진 (한총련 중앙일군(97)) 김용영 (한총련 중앙일군(97))	
	전남	전남대	062-520-6230	이윤구 (남총련의장(93)) 오창규 (총학생회장(94)) 김철수 (한총련 중앙일군)
		조선대	062-230-7671	최태진 (한총련의장(96)) 홍민호 (부총학생회장(96)) 고정 (공대 학생일군(97))
		목포대	0636-450-2283	유영일 (남총련의장(97))
		동신대	0613-30-3870	송상규, 고재환 (총학생회장(93)) 송상규, 김준환 (총학생회장(93), 국무총리비서관)
		목포전문대	0613-30-3870	송상규 (총학생회장(93))
		순천대	0661-50-3911	김용준 (남총련의장(98)) 김종민 (남총련의장(96)) 김종민 (남총련의장(93))
		부경	동아대	051-200-6551
울산대			052-259-2790	손백현 (한총련의장(97))
경남대			0551-42-8161	박은희 (한총련의장(97))
연세대			0525-20-3063	홍용환 (한총련 중앙일군)
동명대학교			620-3467	이정일 (한총련 중앙일군)
부산연세			850-3098	이현우 (한총련 중앙일군)
정신대			0551-79-7981	김민진 (한총련 중앙일군)
불교대			042-629-7786	정기경 (한총련 중앙일군)
한양대	042-629-7786		노병철 (총학생회장(98)) 이재훈 (한총련 중앙일군)	

## 농성단의 요구사항과 입장

1. 김영삼 정권 시절에 양심수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를 야기해 주십시오.
2.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근대 문제 해결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김희원, 정경희, 정태현 등 양심수 전원 석방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사면과 석방을 요구합니다.
4. 5개 현충탑을 야기한 양심수 관련 법안은 이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6개 현충탑 야기 관련 규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풀어주시고, 5개 현충탑 관련 6개 대학의 공기는 조급하게 단정짓지 않으려 합니다.
5. 국가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의 시 시대가 못가져 왔으며 위헌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 혹은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 역군이 조속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객관적 타당성 없어

현재 한총련이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6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가 아닌가는 판결은 법원에서 판결을 볼 것이다. 적어도 6기 한총련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6기 대의원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것은 초법적인 인권탄압이므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에도 문제점은 있다. 우선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던 근거를 살펴보자.

한총련에게 이적단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데 사용된 자료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115조의 발췌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유력한 반론이 없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이후 50년이 흐르는 동안 이 법에 의해 역대 정권에서 저질러진 인권유린 사건들에서 명백히 밝혀졌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내심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인간성을 파괴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계속 저행되고 있는 한총련 미발표 대의원에 대한 탈퇴공약은 심각한 인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담당 경찰에 의해 진행되는 탈퇴공약의 모습은 비상식적이며 못해 비인간적이기까지 하다.

이더우 변호사는 '탈퇴공약에 동원된 첩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형법상 범죄임은 물론이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법치'를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범죄가 '합법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 “제 ‘양심의 법정’에 뚜렷하합니다”

### 준법서약서는 사상전향제의 변형이라는 생각 변함없어

사랑하는 어머니!  
고도수 담배라에 붙은 석방과 명단에 제 이름 없이 힘입어 고개를 막았을 어머니,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사람들의 환영인과 속에서 혼자 무덤에 떨어진 것 같은 심정이 되어 그 이젠 행복도 외로웠을 어머니,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 뒤를 뒤로하고 홀로 민회실로 힘겹게 걸어오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플라스크 항을 사이에 두고 손 한 번 잡아도 지도 못한 채 민회 내내 울고 계셨던 어머니, 13년 감옥살이 그 슬픈 면모가 있었지만 오늘은 저도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준법서약 문제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인권단체 관계자, 양심수를 격정하는 사람 말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회 어머니들은 후여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반대운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서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고정'이라는 사람을 내보내는데 서약서는 최소한의 요구'라든가, '분단상황에서 보수세력이 반발이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유를 다한 것이다'라든가, 서약서는 '안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모두 내보내려고 만든 것'이라든가, '전향제도와 서약서는 다르다'든가 등등.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준법서약제도는 사상전향제의 변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상전향을 거부했던 것은 바로 전향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70년 전 미국 존스 판사의 말이나 '100% 올바른 진리라고 하더라도 죽어버린 독단이 아니라 생생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편과 진정한 토론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아무리 잘못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한 J.S.밀의 말을 빌리자면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사상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배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는 서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복역명령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듯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 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규율은 물론 그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고 이에 어의를 제기하면 반제라는 흑색선언입니다.

서약을 쓰면 나갈 수 있고 어머니 고도수 끝난 수 있을 텐데 저는 두드리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약서 문제도 고민하던 어느 날 소로우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천성이 강제를 당하게 되어 있지 않다. 나는 나대로 숨을 쉴 것이다..... 저들은 나를 자기들과 같이 되라고 강요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강요당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는 않는다. 이런 종류의 삶이 살아야 할 삶이었다."

준법서약서를 쓸 수 없는가,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간혹있는 편이 제 '양심의 법정'에서 뚜렷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약서 쓰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사면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떠드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사회,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서약서는 써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형용모순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천박함이 팽배하는 땅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심오적 담 안일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명칭하고 어리석은 제이지만 93년에 전향 안하고도 무지에서 20년 형으로 감형된 적도 있으니 그것이 그래도 어머니에 위로가 될까요. 제 만기일인 2006년 9월 22일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일흔 셋의 당신을 생각하면 '어려운' 아픈 가슴은 어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제발.

김용준  
85년 구이유학생김원민 사인연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무기형 선고. 현 재 13대 내안고도수 복역중

##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수배해제를 위해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격려와 지지의 말을 많이 보내왔다.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지금껏 나를 살아오게 했고 또 앞으로 살아갈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울 한기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 소박한 이 소망 하나를 이루기 위해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쳐야 할지, 그것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결코 굴복 없이 싸워갈 것이다.

—유병문—

사랑하는 지영아  
조금전 정수로부터 복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를 못 본지 1년이 됐구나. 작년 여름 지리산에 같이 놀러 다녔던 후에 추석 전날 내가 연행된날부터 지금까지 너에 대한 선배로써 격려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복학하면 얼굴을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던단. 지금은 내가 다시 널 만나러 가기 어려운 몸으로 변했구나.

내가 자랑스러운 몸이 되는 날, 널 만나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슬픈잔 전하고 싶구나. 그 날까지 항상 건강하고 충만한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한다.

—홍삼 미안한 선배 동철이—

그리운 인천대 동지들에게  
모두를 잘있었지요? 보고픈 밤, 한량했지만 농성하느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찾아가서 못하고 조계사에서 기다리는 처지이죠 뭐... 다시 만나느 날에는 반드시 '체포포' 나가서 술이며 밥이며 한 판 싸워 보는 걸 기대하고 있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계사에서 춘호

## 그리운 친구들에게

### “다시금 교정을 활보하고 싶구나”

오랜만이구나, 모두들 잘 지내지.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는 선배님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동기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예뻐 떠올린다.

그리고 보니 요즘이 개강이구나. 모두들 희망을 가득 담은 설렘의 미소를 머금고서 커닝에 하나 둘씩 나타날 시간이지구나. 한동안 취업준비하던 노망만이 죽죽던 과방이 상봉의 장소가 되어 시끌벅적하겠지. 그리고는 또 어김없이 책자기를 할 것이며 또 몇몇은 점심시간 축구를 하겠지.

그 자리에 분명 나의 자리도 있을텐데 어찌된 일인지 너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게 나만이 이곳 조계사에 있구나. 그것도 형사들의 감시와 분쇄 속에서....

그런 점에서 지난 수배생활은 아픈 시간이었다.

세월 좋게 낫음을 자다가 사랑하는 후배님들의 꿈을 꾸고 난 뒤 밀려든다는 소름은 의외롭게 아팠고, 가진 것도 바나나 몇 일만 신세 지려고 힘들게 찾았던 친구에게서 반가움이 아닌 그 어떤 난처한 얼굴빛을 보았을 때의 쓸쓸함이 가슴아팠고,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대학의 꿈마저 내게 양보한 누나들의 절규가 가슴아팠고, 수확기 전 쉼으로 들리는 아버님의 환난 울음이 가슴아팠다.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개인주의적인 풍토 속에서 다분히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내가 주위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경험한 생활과 괴롭던 의문 속에서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믿고 또한 나의 존엄을 믿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감을 알았기에 주위에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와 신뢰를 함부로 저버리지 않을 거야.

어떤든 그리움을 밀친 삶이 주위사람을 희망 삼아 다시금 교정을 활보하고 싶다.

커닝에서 기타를 툭툭 소리 높여 노래도 부르고 싶고, 점심시간 축구도 하고 싶다. 또 그렇게 저녁이 되면 녹두거리로 내려가 거하게 마시며 '술이 술아' 무 무리라고도 또 몇몇은 저처럼까지 팔자걸음으로 어찌 걸어갈지 모르겠다. 내 그리운 이들과 함께....

너희들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싶다.

‘사랑한다.’

98년 가을의 문득 조계사에서 영수기

## 농성단 활동보고

- 4월 전남대에서 정치수배자모임을 만들어 서명, 민회서, 모금, 활동보고 등을 벌임
- 5월 전남대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조직을 확대
- 8월 9월 조계사에서 7명의 서기관 수배자 등이 농성 시작
- 10월 8.15 시일에 수배자모임을 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12월 전남대, 순천대, 권오현 민가협 회장, 홍근수 목사, 오종필 전 민주주의 민족통일 장추진단연합 의장 등 5개 현충탑 야기 관련 규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풀어주시고, 5개 현충탑 관련 6개 대학의 공기는 조급하게 단정짓지 않으려 합니다.
- 국가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의 시 시대가 못가져 왔으며 위헌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 혹은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 역군이 조속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6월 15일 전남대, 순천대, 권오현 민가협 회장, 홍근수 목사, 오종필 전 민주주의 민족통일 장추진단연합 의장 등 5개 현충탑 야기 관련 규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풀어주시고, 5개 현충탑 관련 6개 대학의 공기는 조급하게 단정짓지 않으려 합니다.
- 12월 수배자 가족들이 모임을 갖고 민가협 전과 김기 ▲ 14일 수배자모임을 즉구하는 광고, 일간지 여단 전(전남한겨레 신문 9면) ▲ 조계사를 중심으로 대서민 홍보활동 벌임 ▲ 60여명이 이르는 수배자 명단 파악 ▲ 8.15 특별사면을 규약하는 성명 발표 ▲ 18일 8.15이후 활동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개최 ▲ 22일 전국연대, 민가협 등 시민단체 어르신과 학생, 노동자 300여명 이 참가한 '정치수배자모임 양심수 전원석방 연대모임'을 위한 시민의식 결의대회'를 조계사 대운동장에서 진행 ▲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108개 유망정신 사업 ▲ 27일 전남대 선배들과 토론 개최 ▲ 유서, 모금 운동이 참여한 정부당국의 실무자와 전전선소, 오명성 (전남대 2기위원장), 김성태(전남대 1기위원장) 선배님들이 참여한 농성단 대표의 4시에 끝난 대회를 개최 ▲ 27일 수배자 추기 결집 (홍준호, 안선호)

### 조계사 농성단 정치수배 해제

1998년 9월 7일

르포 -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을 만나

## 세상에 한발짝 가까이 있는 사람들

법정자들을 만나리 했다.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보다 무겁다  
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그것도  
한 두명도 아니고 8명이나 되는 이  
들을 만나리 했다. 더구나 그들은  
커업하게도(?) 서울 한복판에 위치  
한 정스러운 불자들의 터전 조계사  
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96년  
연세대 총학생회를 축말로 만들어  
했던 한총련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  
느새 우리는 '한총련'이라는 이름을  
이런 권위로 대하고 있는지도 몰  
랐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원칙을 세웠다.

'한총련'에 대한 그들에 대한 신임  
건을 버리지.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여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  
리가 중요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  
하는 것이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계단  
스런게 먹고 있는 그들의 활기참과  
는 대조적으로 천막앞에는 '농성  
24일'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농성은 24일째지만 그들이  
집으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기간  
은 그보다 훨씬 오래다. 오명규(전  
남대 심리학)과 86, 93년 남총련의  
장서는 학생운동 관련 최장기 수배  
자로 유명해 20년째다. 그러나 그 긴  
기간동안 그들은 세상과 격리되기  
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 더 큰 애정  
과 관심으로 세상에 가까이 있었다.  
언제 갑작스러워 모른다는 불안감보  
다는 수배로 인해 힘들어 할 서민들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조계사 주변에 별  
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찰보다 수단  
에 특격을 가한 미국에 더 분노하고  
있었다. 자기보다 다른이들을 볼 줄  
아는 여유(?)가 있었다. 그들의 힘

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수배를 피해 지내던 어느날, 별래  
비전을 통해 이복동생들이 큰물피  
해(수배)로 인해 기어에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몇 일동안 밤  
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가 통  
일을 하겠다는 내가(그는 96년 한  
총련 조국통일위원이었다) 그들  
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유병  
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4기 한  
총련 조국통일위원외위원장)

"고등학교 때는 대학가서 데모하  
는 놈들은 다 총으로 화죽해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본 사회의 거울 거리를 내몰았습니  
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며 분  
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언제부턴가  
저도 데모하는 대학생이 돼 있었습  
니다." 김현근(서울대 농화학)과 87  
학년, 5기 한총련 연대사업위원)

저는 대학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취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과 사  
회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됐고,  
그러나 대학과 사회는 이미 어릴 적  
'바른생활'에서 배웠던 세상과는 너  
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김성숙(전남대 가정관리학과  
91학년, 5기 한총련 언론사업)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문득 한총  
련 수배자를 자식으로 둔 김종영 목  
사(은평교회)가 대통령께 드리는 편  
지에서 밝혔던 학생들은 가장 맑  
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들은 처음 우리가  
취재했을 때 가졌던 두려움(?)을 불  
식시킬만큼 순수하고 따뜻하고 아  
름다웠다. 이런 그들의 마음이 진실  
이라도 된 듯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

전화와 방문이 끊을 있고 있었다.  
덕분에 그들은 먹을 걱정은 덜게 됐  
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  
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과 학교에 남  
아 생활하고 있는 후배들이다.  
우리가 취재하던 기간 중 그들에  
게 또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이 경찰에 자  
진출두한 후 준법서약서를 쓰던 이  
들을 전원 기소유예 처리하는 법안  
을 정부와 여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  
이다. 8·15 사면 때 적용했던 준  
법서약서"를 수배자들에게도 적용  
하겠다는 정부의 속셈이 변하다. 그  
러나 농성단 단장 오명규씨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결수에게 적용하던  
준법서약서를 아직 법적판단도 끝  
나지 않은 수배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다.

앞으로 조계사 농성단이 활동방향을  
어떻게 정하든 원칙은 하나다.  
"우리의 입장이 아닌 가족의, 후배  
들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그럼에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  
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은 길이 아  
니면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물을 삼킨다"는 부모님의 마음과  
동류할 못내는 후배녀석들 위해 세  
백부터 '노가다를 뛰는' 선배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감동의 순간을 걸  
고 잊지 않으려는 그들의 노력이라  
고도 한다.  
그들의 결의를 대변하듯 농성장  
가장 앞머리에 꽃에 조그만 글씨가  
걸려 있다.  
"희지가 강한자 앞에는 운명도 걸  
을 비친다"

**수배일기6**  
유병문 (96년 동국대총학생회장,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나 이렇게 쫓기고 쫓겨도  
만나는 이마다  
미워하는 이 없더라  
보는 이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엄려해주고  
믿어주더라  
내 무얼 잘못했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반겨주는데  
그들이 다 선량한 사람들인데  
이 땅의 주인들인데  
도대체 정치수배 배경이  
나를 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22일 조계사 담에서

**조계사 농성단과 함께 해주십시오**

- 10만 서명 운동과 모금활동에 동참해주십시오
- 지지 전화, 편지, 방문을 합니다
- 학교 단체에 농성단 활동을 홍보해주십시오
- 언저래신문 의견란에 지지광고를 부탁드립니다
- 15일 '수배해제'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적극 참여해주십시오

문의 : 720-6564(조계사 농성단)

한총련 수배자의 아버지가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길 지 9월호에서 발췌)

**"학생들은 가장 맑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당혹하게 또한 용기를 내서  
감히 대통령님께 이같은 글꼴을 올  
리게 되는 것은 작금에 사회적으로  
심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 한총련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전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 정권 시절  
에 사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부족한 저의 소견과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상식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  
다.

한총련 대의원들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선  
출한 정 부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연합회장 등 각 대학교의 학생회를  
대표하는 학생회의 간부들입니다.  
이같이 귀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고 지명수배  
령을 내리고 구속하고 학생운동을  
정치시키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  
께서 인기부림과 국가보안법으로

공산주의자로 이적행위자로 몰려  
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된 동  
안 옥고의 감금과 정치활동 규제와  
말고 다할 수 없는 피해와 억압을  
받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지금 한총련 대의원들은 잡히면  
무조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조치  
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  
많은 우리 학생들이 법정구속을 당  
하고 쫓기고 있으며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지명수배를 받고 숨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대  
학들이 한총련을 탈퇴했다고 언론  
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러한 억압과 공포문화에서 탈퇴하  
는 것은 진정한 탈퇴가 아니며 정  
당한 방법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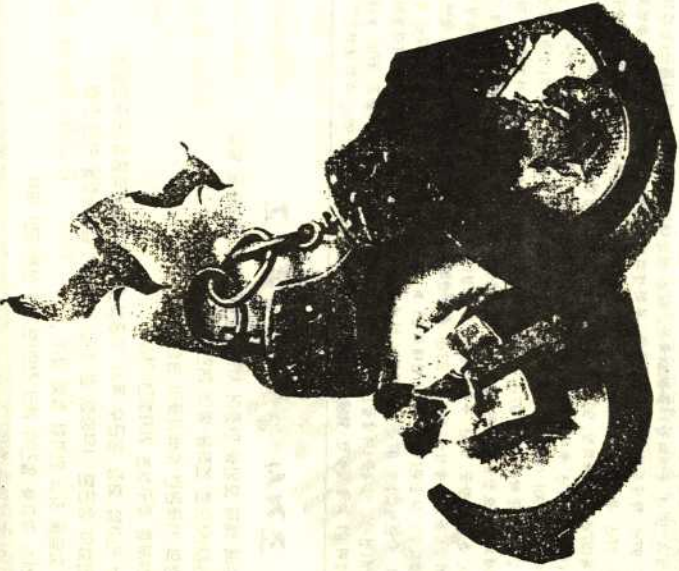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부디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하  
는 부당함을 철회하여 주시고 구속  
된 학생들과 양심수들을 하루 속히  
석방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총련이 보다 더 건전한  
학생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들의 활동을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기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 8월 목사 김광영 유포

# 정치수배해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 농성단 720 6564(http://user.chollan.net/~mcy931NOW) 111:수배해제



김대중 대통령님,  
54명의 아들 딸들이 온 추석을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올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물을 삼킨다.**

학업이 보그신은 내 아들아  
오늘 이 시각도 엄마는 눈물 어찌고 널 생각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구나. 학사일은 있겠으나, 어디간 도 있겠느냐. 누나나 서나, 얼마나 널 그해는 생각은 풀이 없구나.  
문아 내 아들아 너를 생각하며 무척을 못 이루는 눈물과 그로써 세월을 보내며 이 시각을 보내고 있다.  
세월이 약이되고 벌써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구나. 너의 건강은 무, 부디 건강하고 배려나, 엄마의 소원이야.  
부모 자식간에 서로 못 바라는 것을 나누야 하며 비참 고 있겠나. 자식의 정직함이 부모님과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는 필립한나 피터에게 애타다. 비록 내 자식이 정직한 일이 있을 때면 엄마의 마음과 내 마음은 일치한다.  
문아, 혹시 돈이 부족하거든는 있는지, 딱 그 사내며 어떻게는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나빠가 조금 풀리면는 언제까지  
후은나세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나  
어쩌나 너의 기쁨을 본다. 자세한 얘기를 하면면 꿈이 없구나. 그러나 너와로 너의 모습만을 두고 나만 뭉개가  
난다. 부디 부모사귀기까. 밤안 문과 있어 너의 사적인 길이 보고 엄마는 너 생각이 크릴 나야 있다. 문아  
면 문남 웃음의 나날이 찾아오길 유미 가족, 저는 스망한다.  
아름을 그리며하며

97.9.20

유병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외위원) 어머니가 아드에게 보내는 편지.







조건없는 정치수배 해제, 국민의 정부로 가는 지름길!

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양심수들의 정상 사회복귀를 위한 군문제 해결, 한총련의 한반도 대화, 국가보안법 철폐는 57억 요구를 내걸고 조계사 농성을 시작한지도 벌써 80일이 지나 100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를 위한 농성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지와 동참이 줄고 있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시절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의 정당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 중교의 대표자인 민주인사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대법위원회는 재정차국민회의의 인권위원장, 사무총장, 권한대행, 원내총무 등을 만나면서 수배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배해제의 업무 부서인 법무부와 담당 검사의 진화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박정권 법무부 장관과 공안검사기 롭보 한 입장은 너무나 고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수 하여 수사를 받을 것, 반성을 진제로 하여 한총련 탈퇴 내지는 개인하지 않을 것과 규범질서를 준수 할 것을 전명할 것, 이렇게 하면 조직사건 관련자와 이적 표현물 배포 관리자, 폭력시위 관련자를 제외하고 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소 중지가 자수기간에 자수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선별조치의 다름 바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더 전혀 죄인 취급하며 양심수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지지하는 행정부, 그것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박정권 법무부장관이 이런 고압적이고 보수 수구적인 공안논리로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나라를 믿진 김영삼의 독단과 부정부패에 저항하다 수배된 우리들을 죄인 취급하며 배기를 들고 투쟁하던 선저하겠다는 전형적인 공안수구 논리입니다.

양심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 길게는 6년 째 1년 이상을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수배생활을 견내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공안논리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과거청산과 인권신장, 개혁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압적인 요구엔 절대 응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안수구 세력과 그 논리, 역사의 퇴물을 청산하고 민주 개혁의 전진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수 / 배 / 해 / 제

여성문 시집 [ 양수리에서 ]

96년 동국대 문학영양학사 4기 문학계 3기문예창작회 4기 문학계 3기문예창작회 문학영양학사 4기 문학계 3기문예창작회

동지들과 함께 한 조국통일의 길, 그리고 3년여의 수배생활에서의 사색과 지난은 삶이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농성단의 요구사항과 입장>

- 1. 정치수배 해제
2. 양심수 군문제 해결의 상식적 기준 마련
3.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사면과 석방
4.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 규정철폐, 탄압 중단
5. 국가보안법 철폐

- 11월 15일 조계사에서
"인한 자유! 양심수의 자유!"
를 위한 문화제 준비 중.
10월 30일 유거형 대통령 탄압시 농성단 활동가로 진단
10월 16일 수배자가수협의회 결성식과 민권총대회 주최로 민중생존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 농성단 식별로 협정부의 기만성을 밝히고 결의를 다짐
10월 10일 유거형 대통령 탄압시 농성단 활동가로 진단
11월 15일 조계사에서
"인한 자유! 양심수의 자유!"
를 위한 문화제 준비 중.

26 1998년 11월3일 화요일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연속광고(1)
안양권 이적단체 규정 철폐! 헌법서약서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1998년 11월 4일 수요일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연속광고(2)
학생회 선거 탄압 중단! 이적규정 철폐! 헌법서약서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명동성당 농성단

1998년 11월5일 목요일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 연속광고(3)
부당징집 철폐하고 양심수 정상화 사회복귀 보장하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사 농성단(농성1일째)

1998년 11월7일 토요일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 연속광고(4)
정치수배자의 자유 억압하는 국보법 철폐! 민족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1998년 11월9일 월요일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연속광고(5)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자주경회 30대 총학생회

1998년 11월10일 화요일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연속광고(6)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경북대 30대 자주총학생회

1998년 11월12일 목요일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 연속광고(8)
"우리는 5기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 효재형을 기억합니다"
효재형을 기억하는 800경제인의 정성입니다
청년서감 14대 경성대 학생회

1998년 11월14일 토요일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 연속광고(10)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생존권 쟁취! 애국 한양 총학생회

1998년 11월17일 화요일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 연속광고(11)
양심수를 석방하라! 농가부채 해결하라!
98 의혈증앙 민족예술대학 학생회, 장서리 기를 농합대

1998년 11월18일 수요일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연속광고(12)
한대웅, 지상봉, 강효식 선배님, 신우와 영철 그리고 양심수 동지들! 힘내십시오, 투쟁! 민족총심 선배님, 친구, 학우일동

1998년 11월19일 목요일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연속광고(13)
양심수를 빨리 석방하라! 통일연세 35대 공대학생회





# 안겨레 생활광고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해제! 참 개혁의 출발입니다.**

1. 건국 50주년 8.15를 맞이하여 김대중 정부는 양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조건없는 전원석방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또다시 저버리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모든 양심수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사면제도는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집시법, 노동법 등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제2의 사상헌법제도가 다름없습니다.
3. 양심수를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영삼 정권의 강권유치와 연장을 위해 병동의 자유마저 구속하려고 한 정치적 수배는 이제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강한 수배해제를 단행하기를 바란다.

**광주 전남 서명자 명단**  
 기세문 송희정 김정자 노영진 염현호 오영환 윤정복 정오진 양화태 강도희 박영순 노영규 이우현 홍광석 영안단 영대현 김효식 이종관 정형자 전경진 현영환 오상규 박용현 신보조 원남호 이도형 양민호 김신진 양강출 양종진 안수석 추희형 민정경 박현숙 김민석 이은영 박선애 김영미 조충영 송관람 유원호 이효영 이인범 고익환 유양호 김진태 김진호 기기필 양일표 이종진 이형각 (이 광고는 서명자들의 1만분의 1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8월 3일~8일까지 광주우체국에서 전개되었던 서명운동에 5,600여명의 광주시민들이 참여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결성식**  
 (10월 16일 조계사 2시 기자회견, 2시 30분 중각역 선전전, 3시30분 결성식)  
 김영삼정권이 수배자로 내린 66명 아들 딸들의 수배해제와 목재정권의 유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수가협(약칭)을 발족합니다.  
 고재영 공문규 김강호 김다전 김연근 김지옥 김형규 노근식 박관순 박영웅 변한도 배금조 송경관 송길택 송준섭 손준희 신용문 신영철 염양기 유필근 유태홍 유병진 양지용 원진남 이국진 이근자 이원호 이의광 오종철 이종택 이형숙 장재욱 정영관 정영 화 진지연 최남호 최원학 최무용 최태구 홍익수(수가협 연락처 732-6880)  
 조계사에 없는 58명의 자식들이! 건강하란 지내다오.  
 이제 부모들도 함께 하마, 보고 싶구나!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하루 주막**  
 9. 12(토) 2시 동국대 다학관 희망새 천리마 꽃다지 신바람 공연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9. 13(일) 6시30분 조계사 대웅전 (중각역 하차)  
 꽃다지 희망새 김영남 김병성 송시현 이지상 공연  
 시인 등 예술인 다수참여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농성단 (720-6564)

**정치수배해제·양심수 완전석방·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  
 일시: 1998년 8월 22일(토) 2시  
 장소: 조계사 내 대웅전 앞  
 주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

오늘 2시,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집회도 참여하시고 7명의 정치수배자도 보러 오세요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720-6564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서 철폐!**  
 광동주, 오영욱, 박희정, 김선기 동지와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고 이대동, 권현영, 이운구 및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수배를 해제하라!  
 겨레의 자랑 대경총련 동우회

## 의견

유병문을 비롯한 학생운동 관련자 수배해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합니다.  
**민족통일 대학생회**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병문의의 조계사 농성을 지지합니다. 병문아 힘내라!  
**민족통일 불교학과 92학번 일동**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이 나라를 망쳤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이때에 그 시절에 양심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서울농대 김현곤(87), 김계돈(94), 이영수(94)의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서울농대 90학번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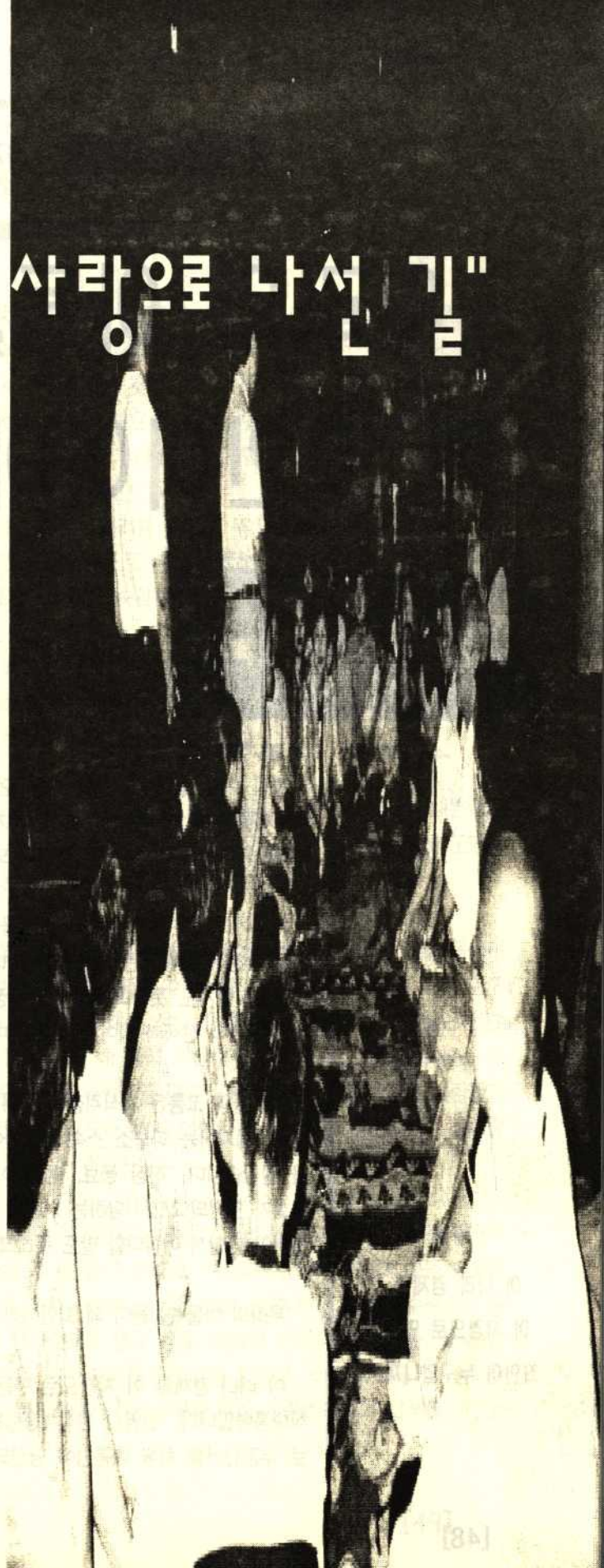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그날까지 성숙아 힘내라!  
**호남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 동우회 일동**

식발투혼으로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 투쟁을 벌이는 김성숙양에게 힘찬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김성숙과 함께하는 전대기련 출신자 일동**

# "어머니 자식 사랑으로 나선 길"

아버지란 이름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 가슴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란 이름에  
 눈가에 흥수지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 유병문의 '자식' 중



■ 어머니, 자식사랑으로 나선 길

수배자가족협의회

# 우리의 아들, 딸들이 왜 죄인이어야 합니까!!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선/언/문

자식 수배 풀리는 날만을 고대하던 부모들이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를 결성, 자식들의 억울함을 풀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자식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타향에서 고생하고 있을 자식 걱정엔 부모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인간답게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잠자리 걱정을 하며 해낼 것을 생각하다보면 부모들도 어느새 자식 신세가 되어 마음 조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자식걱정에 끝나지 않습니다. 도 경찰청, 시 경찰청, 보안수사대, 심지어는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아무 때나 집에 찾아와 협박, 회유, 공갈을 일삼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이웃들에게까지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전화가 도청되고 감시당하는 기분이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자식이 불이익 당할까 이렇다할 말도 못하고 몇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왜 죄인이어야 합니까?

이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진짜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영삼 전직대통령입니다. 김영삼 전직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건네 준 수 조원의 돈으로 부정선거를 치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아들까지 동

이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죄인이 누구입니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  
'이젠 자식을 볼 수  
있겠구나' 기대했는데.....

수가협 결성선언문

원해 한보비리 등 온갖 부정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도둑을 대통령으로 놔두면 이 나라가 망하겠기에 학생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 자금을 공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줬다면 자식들의 희생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생계에 바쁠 때 의로운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들의 주장은 나라를 망치고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로 매도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빨갱이로, 폭도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속임수가 분명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수 백명의 학생들을 연행해갔지만 아직도 66명의 수배자들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400여명에 이르는 양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이 들어서 양산된 수배자가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갈취하고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김영삼 전직대통령은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이에 대항했던 자식들은 아직도 죄인으로 낙인찍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국민의 정부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작년 대선 때 김대중후보가 수배해제 해준다고 가족, 친척들은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이젠 자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석방되었을 때 '살인자도, 부정축재자도 나오는데 죄 없는 내 자식 수배해제 안되랴' 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특별사면에서도, 8월15일 특별사면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만 국민회합차원에서 사면해 주고 수배 해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인가요?

이제 김영삼 정권시절에 무고하게 수배되어 거리를 해매고 있는 아들딸들의 수배해제를 위한 활동에 두 손 걷어 부치고 나서고자 합니다. 8명의 아들 딸들이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위해 69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수배자로 둔 우리 부모들은 부당한 정치수배를 풀고 아들,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정의를 살아가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들은 침묵을 깨고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결성을 선언합니다.



수가협 결성선언문

수가협은 정치수배를 받아 억울하게 탄압받는 자녀들의 수배해제를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1.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동을 적극 후원할 것입니다.
3. 수배자들의 수배 사유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경찰과 수사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5. 수배해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
6. 수배자 가족들간 위로와 친교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7. 국가 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8.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수배자 가족협의회의 활동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1998년 10월 16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수. 배. 자. 가. 족. 협. 의. 회

(공동대표 유철근·오종렬·이형숙·장재옥)

고재영 공문규 김강호 김다전 김연근 김지옥 김형규 노근식 박관순 박형용 방한덕 배금조 송경관 송길택 송순섭 손춘덕 신용문 신영철 엽양기 유철근 유태종 윤병연 윤지운 윤진남 이국진 이근자 이원호 이의광 이종택 장희숙 정종찬 정 화 진지연 최남식 최임화 최무웅 최태구 홍덕수

수가협의 활동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수배자가족협의회

수. 배. 자. 가. 족. 협. 의. 회

활 동

수배자 가족들의 활동 경과 보고

- 8월 12일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수배자 가족들이 모임을 갖고 농성단의 활동을 격려함. 이후 민가협 집회 참가
- 9월 13일 사회단체 어르신과 7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계사 대응전 앞에서 '양심수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참석
- 9월 24일 수배자부모님, 민가협어머님, 도관 스님, 김재용(한총련1기위원장) 등과 함께 법무부를 항의방문하여 박영관 검찰 3과장을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친척 탄원서 부모님 자필 탄원 편지를 제출함
- 10월 15일 20여분의 부모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식 수가협 모임을 가지고 회칙과 목적 사업, 활동계획을 결정하였으며 공동의장 네분을 선출함.
- 10월 16일 수가협 결성과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 한화갑 원내총무 면담을 진행하여 당내토론과 대통령 보고를 획득받음, 수가협 결성식을 진행하고 민권공대위 주최의 결의대회 참가.
- 10월 31일 민권공대위 주최 "양심수 없는 나라" 참가
- 11월 8일 민중대회 참가
- 언론홍보활동 전개: 월간말 편지글 소개, MBC라디오 여성시대에서 편지글 소개됨
- 66명의 수배자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조계사를 방문하여 지지활동 펴
- 수배해제를 위한 서명활동과 가족 및 친지 탄원서 받기를 진행하여 서명 4000여명과 탄원서 1000여명의 성과를 거둬.
- 매주 목요일 민가협 목요일집회 참가



## 수.배.자.가.족.협.의.회 활동계획

- ▲ 수배의 부당함을 범국민적으로 홍보한다.
  - 신문광고, 탄원 운동, 대통령에게 탄원편지 쓰기
- ▲ 사회여론 주도층인 종교계, 학계, 정치계에 수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수배해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면담추진(종교계-각 종단대표, 대교협-대학 총장, 정치계-진보적 정치인)
- ▲ 대통령 면담을 추진한다.
- ▲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수가협 활동을 전개
  - 매주 목요일마다 민가협에서 주최하는 목요일집회에 참석하여 홍보활동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목요일집회 후 조계사에서 서울 지역 수가협 모임을 갖는다.



- ▲ 여러 집회에 참여하여 수배해제 선전 활동
- ▲ 경찰과 수사당국의 위법행위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법적대응 활동등을 전개한다.
- ▲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단 지원과 수배자 가족간의 위로활동을 펼친다.



## 수배자가족협의회

# 수.배.자.가.족.협.의.회 회 칙

###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수배자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정치수배를 받아 억울하게 탄압을 받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수배해제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위해 노력
  - (2) 정치수배자들의 수배사유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 활동 전개
  - (3) 정치수배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 (4) 수배자 자녀들의 수배해제 이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
  - (5) 준법서약서 폐지운동
  - (6) 경찰과 수사 당국으로부터 수배자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7) 수배자 가족간의 위로와 친교활동
  - (8)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 활동을 적극 후원
  - (9) 인권운동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 제 2장 조직

- 제4조 본회는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를 둔다.
  - (1) 총회
  - (2) 임시모임
-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김영삼정권시절의 정치수배자 가족을 회원으로 한다. 단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가입을 원할때는 본회의 허락으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수·가·협 회칙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의 및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규정과 제반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7조 (총회) 총회는 회원의 1/3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1) 총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시 성립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칙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③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 ④ 기타안건

제8조 (임시모임)

- (1) 임시모임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일상적으로 모임을 소집 진행한다.
- (2) 임시모임에서 일반적인 목적 사업을 논의 집행하며 통괄한다.

제9조 (상임회장, 공동회장)

- (1) 상임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2) 상임회장,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집행위원)

- (1)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사업, 재정 등을 감사한다.
- (2) 총무는 재정관리를 한다.
- (3) 집행간사는 일상적인 사업을 집행한다.

제 3장 재정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및 특별성금으로 충당한다.

제 4장 회칙의 개정 및 준용

제12조 (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개정할수 있다.

제13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5장 부칙

제14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배자가족협의회

# 우리 아들, 딸들을 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 수배자 부모님 대통령 탄원서

### ■ 김현곤 어머니 장희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IMF라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이 다 고생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군인들이 정치를 할 때는 국민들이 재 할 말을 못하고 어찌다 바른 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혀가서 죽어서 돌아오거나 반 병신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들을 60평생을 살면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김영삼대통령 때는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수배자가 되어 몇 년을 얼굴 한 번 못보고 보냈습니다. 제 아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어렵게 겨우 집에 들어와서 쉬쉬해가면서 상을 치렀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요즘처럼 명절이 다가오면 차례 상을 준비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보낸 내 막내 아들이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송편하나 제대로 못 먹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먹지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 국민의 세금 몇 백억을 가로챈 사람 다 사면되는데 제 아들이 아직까지 수배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하고 떠돌아 다니고 있나 싶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우리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옳은 소리 한번 한다고 해서 수배자가 되고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한테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부디 저희 막내 아들 김현곤, 올해 추석은 이 엄마의 품에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배생활 청산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도 어렵게

정치 생활을 하셔서 수배되어 있는 아들을 둔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도 모두 다 감옥에서 나오고 국민의 세금 몇 백억을 가로챈 사람들도 다 사면되는데 제 아들은 대학생할 하면서 옳은 소리 몇번 한 죄밖에 없습니다. 부디 수배를 풀어주세요. 관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몸 건강히 나라 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류순 어머니 이형숙

저는, 김영삼 문민정부 제 5기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류순의 엄마입니다.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50년만의 정권교체도 아들의 자유롭지 못한 삶 탓에 기슴 한 쪽에는 추운 응달을 남겨 둘 수 밖에 없는 잔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함 지도 7개월 채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번 사면 조치가 있을 때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있을까 뉴스 신문등을 매일 매일 들여다 보는데도 슬프고 절망스러운 소식뿐입니다.

그저 '양심수 전원 석방', '전원 수배해제'로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희망의 선물을 안겨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헛된 소망일뿐인가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을 품지않고 순수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혈기만이 흐르는 젊은이인데, 그 아이에게 자유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왜 차단되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류순은 인문과학, 사회과학쪽에 관심이 많고 자기 전공 분야인 경제학 분야에도 탁월한 재능을 지닌 수재자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살 수도 있지만 항상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이타적인 학생입니다. 설령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자기 삶에 비

설령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자기 삶에 비추어 성찰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추어 성찰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된다, 하지마라, 잘못했다고 무릅 꿇지 않으며 용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억박지르고 굴복시키지 말고 좀더 넓고 좋은 길을 열어 주면 그 착한 심성이나 성실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수배 해제해 주세요. 집에 대리고 와서 따뜻한 밥과 국도 해먹이고 싶고 평안한 공부방에서 밤늦도록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떨어지고 닳은 신발에 물이나 새지 않을까, 밥을 굶고 있지 않을까, 부모님 심정이 다 그렇겠지만 가슴이 아파 뜯 눈으로 밤을 세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는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삼고있는 정부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라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신 그 말씀 듣고 제 마음속 깊이 감명 받았습니다.

순수하고 사심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희 아들이나 지금의 양심수 가족들은 '국민의 정부' 아래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슴에는 아직까지 깊은 상처가 남아 있고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들은 조건없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부디 대통령의 힘과 의지로 이들의 가슴속에 깊게 박혀 있는 가시를 빼어 주십시오.



가족의 품으로

The Political Prisoner of Conscience In South Korea

오. 바쁘시더라도 이 글을 읽어 주시고 동시에 제 마음을 읽어 주시고 양심수와 수배생활하는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까지 읽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창희 어머니 장재옥

어려운 국난에 시달리며 정치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천재이며 수해에 영앙을 주셨기에 날씨가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김영삼 대통령께도 서신을 올리려 무척 망설였지요. 대통령님 취임식전에 일산 저택에도 찾아뵈려고도 망설였지요.

저는 한총련을 좌지우지한다는 정책위원이라니 이창희 엄마입니다. 23년이나 전화 한 통, 소식 한 가닥 없이 지나가네 자식걱정. 4계절이 23번 바뀌어도 소식은 없고 형사 분들만 줄을 이었으니 살아갈 용기마저 잃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당선되면 한총련은 풀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러기에 대통령 바꾸기를 해 보겠다고 7·8년이나 힘을 썼답니다. 좀 달라져 보이세요.

사상 양공분자, 이적단체..

이 시대에 어울리는 글귀인지요.

한총련을 그렇게 아비하게 저

르고 하지 마십시오.

사상, 양공분자, 이적단체... 이 시대에 어울리는 글귀인지요. 한총련을 그렇게 저렇게 아비하게 자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 그렇게 봐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합니다. 형사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가진 고생 무릅쓰고.. 우리 창희는 희생자입니다. 상을 줘야 한다고요.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여론도 내 자식을 편들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도 있겠지요. 국민들은 학생들을 이용해 놓고 헌신짝 버리듯이 한다고요. 학생들이 아니면 현정부는 물론 이 시대가 오지 않았습디다.

이 지면이 대통령님 전에 잘 전달될런지도 궁금하지만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 부모의 심정 헤아려 주십시오. 서신을 올리고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이며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계사 내에 있는 농성단들 출기 전에 선치를 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71명 한총련 학생 수배자들 죄를 주시되 가볍게 주시고 젊은 새일꾼들을 너그러이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 유병문 아버지 유철근

길은 멀고 갈 길이 조금한 사상 최대의 난국 IMF선상에서 나라 경제 회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뇌하시는 각하님 전에 외람되게 글월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면서 96년 연세대 한총련 행사를 주도했다는 조통위원장 유병문의 부모입니다.

군부독재자와 손을 잡고 변절을 하였고 농산물 수입 막겠다던 선거 공약을 우루과이 협상에서 굴욕당한 정권을 향해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묘한 술책 끝에 젊은 반항심과 영웅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체, 이적단체로 규정한데 대하여 하늘 땅을 가르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당시 정명기 한총련 의장, 박병언 대변인 등 기타 많은 주모자를 연행하여 조사, 사법처리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적이더란 말인가요.

김일성과 손을 잡은 것도 아니요, 김정일의 발목 잡은 것도 아닌데 또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행위도 아닐 진데 도대체 하늘아래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이적단체라니...

그래요 국민을 속이고 기만이나 하면서 울가미를 만들어 써어 정권유지나 하고자 했던 무능한 김영삼 정권의 정치형태를 보면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사형 전두환, 20년형 노태우. 두 군부독재자들이 권자에 앉아 감쪽같이 한 것, 국민을 속이고 부정 축재까지 저질렀음에도 마치 흥정하듯 무슨 이유로 2년만에 사면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양심수를 외면한 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선자금 공개요구가 죄가 된다면 3년이란 긴 수배생활 그것으로 대가는 충분합니다.

민주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세력이 있어야 한다면 억울한 양심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여 용광로에 무쇠를 녹이는 울화가 탑니다. 화합정치로의 진정한 개혁은 조속한 양심수 전원석방과 수배해제, 군무에 대한 합리적 혜택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제 2건국,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불안에 쫓기는 자식걱정과 시간도 때도 없이 마음대로 깨워서 새벽 4시가 넘도록 감시당하기를 수차례, 그래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내자식 잘못인양 할말 못한 30개월의 긴 세월이 지금은 멍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대선자금 공개요구가 죄가 된다면 3년이란 긴 수배생활 그것으로 대가는 충분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면 우리들의 자식들이 잘될 걸로 기대하였는데... 아직 누구의 눈치를 더 살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직 각하의 특별한 배려없이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귀뿌리를 때리는 엄동이 오기 전에 따뜻한 선물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깊이 헤아려 주셔서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와 함께 화합정치를 구현하셔서 각하의 투철하신 영도력에 기필코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이시기를 북백드려 바랍니다.

불철주야 고뇌하시는 각하의 건승과 국운이 함께 무궁하시기를 기원하옵고 두서없는 난필을 이만 멈추겠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 홍준호 아버지 홍덕수

대통령님께 삼가 글월 올립니다

먼저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시고 또한, 내외적으로 혼란한 이 시국을 돌보시느라 열만 노고가 크시겠습니까? 아뢰을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총련 수배해제의 문제와 관련해서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근거는 국가보안법이라는데 있는데, 이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및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법입니다. 저와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계사 농성 중에 있는 한총련 수배자들은 부정한 김영삼 정권에 대응해서 싸워왔던 각 대학교의 학생회 간부들입니다. 이런 귀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울가미를 씌운 채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 행위입니다.

지난 어느 날, 국가보안법은 민주시대의 통일에 맞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가 있고 해서 김대중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 혹은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기억이 듭니다.

또한 저의 기억으로는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동안 옥고와 감금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범법자로 낙인찍혀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및 수배해제를 위한 조

귀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울가미를 씌운 채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 행위입니다.

계사 농성단은 아무런 대책 없이 구속조치 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조계사의 농성단은 허름한 천막 속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숨죽은 듯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한 해 넘도록 집에 오지 못하고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며 먹고, 입고 잠도 자기 마음대로 편히 잘 수가 없는 지경이라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인천시경, 김포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남부경찰서, 김포 양곡파출소에서 자수시키고 한총련을 탈퇴시키라고 연일 가정방문을 하고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수사관계자가 저희 집과 가족들의 일자리까지 찾아와 협박과 회유를 하고 퇴근길에서도 계속 감시의 눈초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자식을 둔 부모로서 불안과 초조가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습니다. 이런 공포분위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당한 담당 경찰에 의해 진행되는 협박과 정신적 피해와 탈퇴공작을 철회하여 주시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총련이 보다 더 거둬낼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보장하여 주시고 장래의 이 나라 주인이 될 젊은이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조속히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김효재 어머니

김대중 대통령님 국사를 보살피느라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는 한총련 수배자 김효재 부모님입니다.

먼저 효재에 대해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효재의 죄값은 부모가 다 받았다고 봅니다. 효재도 숨어 사는 나날이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 하였습니다. 하루가 한달이고 한시간이 하루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만큼 눈물을 흘렸고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대통령님을 위하여 많은 선거운동을 해왔고 이번 선거에는 수배자 효재 때문에 더 열심히 했지요.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총련을 용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번 천번 부탁드립니다. 한총련을 용서 해주시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가 한달이고 한시간이 하루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최선희 아버지 최무웅

국사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참으로 영광스러운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민주발전과 망가져 버릴 뻔한 경제회생에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신 대통령님의 정치 삶이 우리 국민에게 큰 감명을 주셨습니다. 과거 유신 독재 시절의 그 엄혹한 탄압과 광주민주화살의 살벌한 정치 풍토에서도 오직 민주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 오신 대통령님의 삶은 인동초와 같은 고결한 느낌으로 대통령께서 사랑하고 계신 이 땅의 국민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 발전의 기틀을 닦아가야 할 시점에서 지난 김영삼정권 시절에 잘못되어지는 나라를 걱정하던 젊은이가 이제 수배자가 되어 버린 양심의 학생들이 아직까지 창살없는 감옥에서 오늘의 새 시대를 열어 가고 계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희망찬 새정치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며, 이웃 모두까지를 모르는 채 도망자의 지옥같은 세상, 어딘가를 헤매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날 잘못되어지는 정권 하에서 기약없는 수배자가 되어 다시는 올 수 없는 귀중한 한 세월을 탈취 당해 피눈물 흘렸고 한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전 정권 하의 정치 수배자들에 대한

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조건 없는 수배 해제 조치는 민주주의라는 대명제 이전에 양심을 지킨 인간의 원초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라 믿습니다.

더구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죄과를 저지른 전임 통치자와 그 관료들은 국민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복권 되는데 잘못되어지는 그 정권 하에서 그에 저항하다가 수배자의 신세가 되어야 한 양심적인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에서도 아직까지 감옥과 암흑의 거리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처구니없게도 수배자가 돼 버린 자식 때문에 밥잠을 못 이루고 계신 이들의 부모와 가족이, 희망을 안겨 주신 새시대·새정치의 주인이 되신 대통령님께 그간 걸었던 기대는 막막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너무도 큰 희망이었고 이제는 훌륭한 이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임을 굳게 마음하여 수배해제를 확고대했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잠에서도 귀익은 자식의 체취에는 번뜩 잠에서 깨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한 자식의 아버지요, 크게는 이 나라 국민의 아버지이십니다. 길게는 6년 짧게는 1년여를 그토록 보고 싶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모들은 어찌 살아있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밥 한술 드심에도 자식 걱정이지요, 새벽 찬바람에도 자식 걱정, 감기라도 올라치면 아픈데는 없는지 오직 자

길게는 6년 짧게는 1년여를 그토록 보고 싶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모들은 어찌 살아있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식 걱정이지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분명 한 가정의 아버지 됨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전 정권 하에서 수배자가 되어 버린 이들의 부모, 가족이 정권교체만 되면 과거 잘못된 정치 속에서 쓰러린 경험과 고초를 겪으신 새 대통령이시기에 보다 폭 넓은 헤아림과 포용으로써 부모들의 애타는 여러 문제가 해맑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지난 대선에서 선거에 참여하여 마음한 표를 힘껏 찍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룩된 지 6개월여가 지나가는 안타까운 기다

림에서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 조계사 절에서도 8명의 수배자가 40여일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천막농성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에 조그만 힘이라도 되까하는 것이겠지요. 법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오 잘못을 일깨워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수배자들이 어찌됐든 법에 위배된 것으로 하여 법에 묶여 그 곳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벌을 받고서야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보다는 다시는 그런 범망에 들지 않도록 빠져 나갈 길을 열어 주심이 아버지의 참 가르침이 아닐는지요?

김대중 대통령님, 과거 정권 하에서 수배자가 된 이들도 분명 이나라의 자식들으로써 이제 보다 살만한 나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 몫을 해야 할



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대통령님께 국사에 바쁘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이들의 수배해제를 꼭 선처해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민주무강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 김성숙 어머니 이숙애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몇마디 적어 봅니다.

저는 수배자 처지로 현재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성숙(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91. 97년 한총련 대변인론사업)의 엄마입니다. 농사 지어 5남매를 대학 보내느라 힘겨운 살림살이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 딸 성숙이는 전남대학교 신문사에서 활동했습니다. 기자 일이 힘겨운 것처럼 보였지만 스스로 등록금과 용돈을 벌며 대학에 다니는 것이어서 장하기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활동을 하다가 97년부터 한총련에서 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식구가 반대를 했으나 본인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묵인했습니다.

성숙이는 97년 3월 활동 중에 몸에 혹이 생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픈데 없이 튼튼하게 자란 딸인지라 처음 수술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녀석은 수술이 끝나고서야 식구들에게 넉살 좋게 '큰 수술이 아니니 걱정말라고' 터 놓더군요. 수술 후에도 안정이 필요했음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서 다시 떠돌이 생활에 나섰습니다. 걱

옛날 같으면 저 같은 부모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가슴만 태우고 있었을텐데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학생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 앞서면서도 워낙 믿음직스러운 자식이었기에 일일이 잔소리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던 어느날, 97년 7월경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서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자식들끼리는 서로 알고 있었지만 이 엄마, 아빠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야 성숙이 상황을 알았고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귀하디 귀한 내 자식이 범죄자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은 저희 집안에 우환이 많았습니다. 3월에 성숙이가 수술했고 4월 말에는 성숙이 아빠가 경운기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1달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성숙이는 아버지 곁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혼자 하느라 병원에 오래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대 학생이 시위 도중 사망한 사건이 생겨 비뽀 것이라는 짐작은 했습니다만 병간호할 사람이 없었으니 오랫동안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느 날 성숙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말을 꺼내기가 미안해서 그랬겠지만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가장 가까이서 있으며 의지하던 자식이 없어지니 망막하더군요.

성숙이 아빠가 수술 뒤에 몸이 좋지 않아 제가 농사일을 혼자서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아 32일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사랑스런 막내딸을 못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 그지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약해진 것인지 병원에 있는 동안 더욱더 막내딸이 보고 싶더군요.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 최원석 부-최남식 모-방영숙

눈물로 호소하며 탄원합니다.

김영삼정권이 경제를감당하기 어렵게 해놓은 경제 난국을 물려받아 경제난 회복에 여념이 없으신 김대중대통령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젊음을 민주화운동에 바쳐,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 갈망하는 소리를 잘아시는 대통령님을 누구보다 존경했던 한 서민 최원석 아버지가 삼가 글을 올립니다.

김영삼정권 타도를 부르짖다 억울하게 수배자로 쫓기는 저의 자식 하루하루 삶을 상상해보십시오. 부모 형제들 심정, 비통하고 애통함을 가늠 길 없습니다.

부정과 비리로 죄를 감당해야 할 전직 대통령 등 많은 관료들은 사면 복권되고 오히려 그들을 타도하며 부르짖다 억울하게 수배생활을 하는 젊은 새싹들 봉우리를 꺾으며 거리에서 방황케하는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길 애원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저희들 부모 심정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착실한 아들, 학교에서도 모범 학생이었는데 벌써 1년이 넘도록 수배생활을 해야 하는지요? 인권보장도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었을 때의 부모 심정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희망이었던 정권교체만 된다면 김대중대통령님께서는 민주화 선구자이셨기에 수배해제는 꼭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님의 관대하신 수배해제가 없어 탄원합니다. 관대한 조치가 하루 속히 있을 것을 믿고 이만 줄입니다.

바쁘신 국사에 몸 건강하시옵길 바랍니다. 호소합니다.

군대를 가도 휴가를 주고 감옥살이를 해도 면회를 갈 수 있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자식의 얼굴을 1년이 넘어도 볼 수 없는 것인지. 전화 한 통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경찰들은 시집간 딸들에게, 고시공부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대학 다니는 막내아들한테까지 전화하고 찾아다며 갖은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 딸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서 주위 동료들에게 수근거리며 나쁜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다지만 가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만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라 망쳐놓은 살인자들은 경호인까지 두고 편하게 살게 해주면서 정치 바로 하라고 시위한 학생들은 끝까지 잡아넣으려고 하니깐요. 우리 나라가 이만큼 민주화 된 것도 모두 성숙이 같은 학생들 덕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있기까지도 학생들의 희생이 큰 힘이 되지 않았던가요. 옛날 같으면 저 같은 부모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가슴만 태우고 있었을텐데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학생들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선물을 못 줘도 억울한 사정만이라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나라를 바로 잡느라 염려가 크실텐데 하소연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발 제 딸의 수배를 풀어주십시오. 시집갈 나이가 다된 딸입니다. 시집은커녕 자유로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보고싶은 사람도 못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활동했던 딸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꼭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사 농성단을 찾아

# '추석'이 그리운 사람들

지난 9월의 마지막날, 비가 촉촉히 내리던 종로 거리를 지나쳐 조계사에 들어섰다. 어느 집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처럼 대화를 나누며 밤을 까먹던 학생들, 이들 조계사 농성단이 정치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지도 오늘로 정확히 60일이다. 지쳐 있을 법도 한 그들의 농성생활의 배경인 조계사를 찾아보았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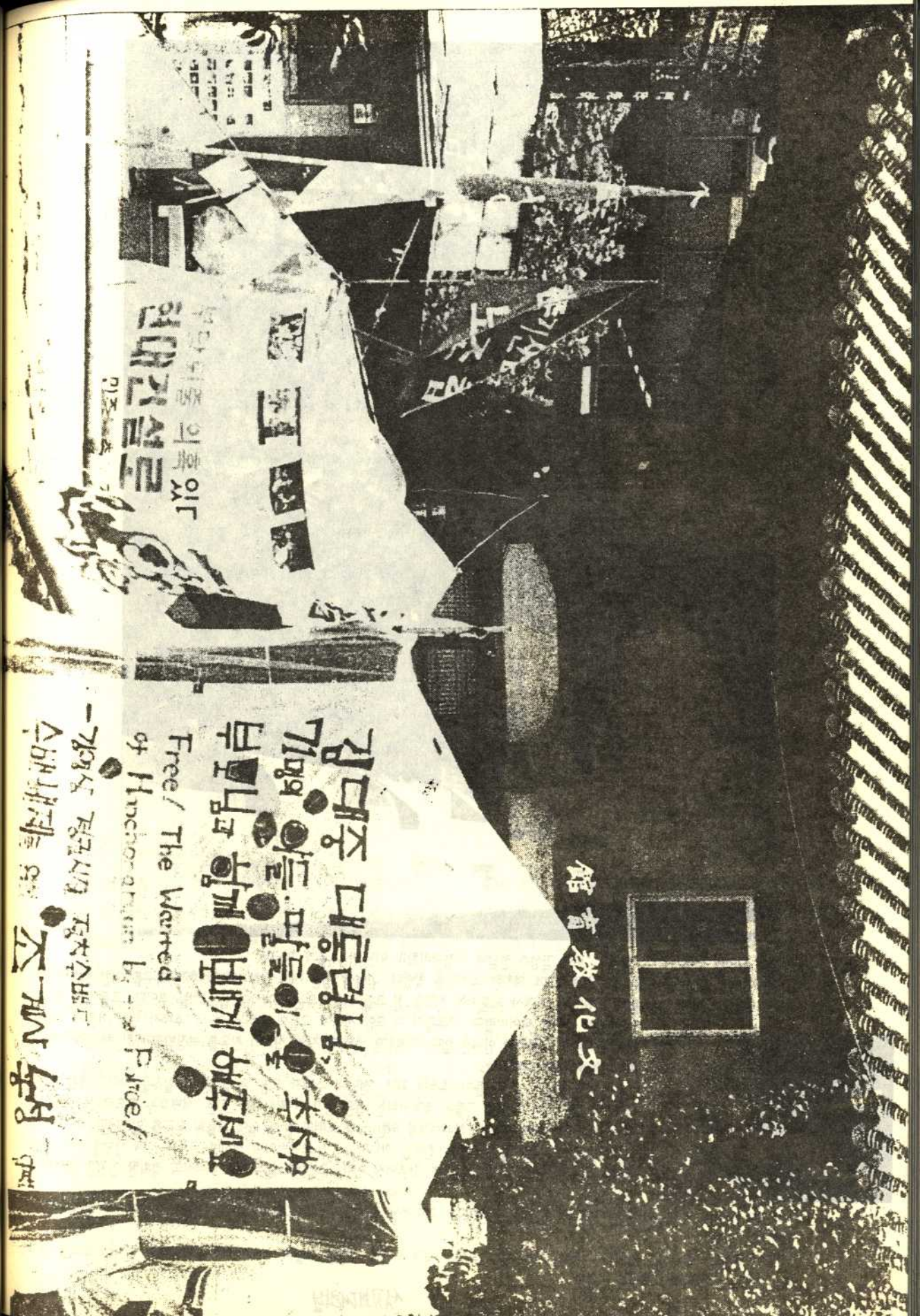
사진 김정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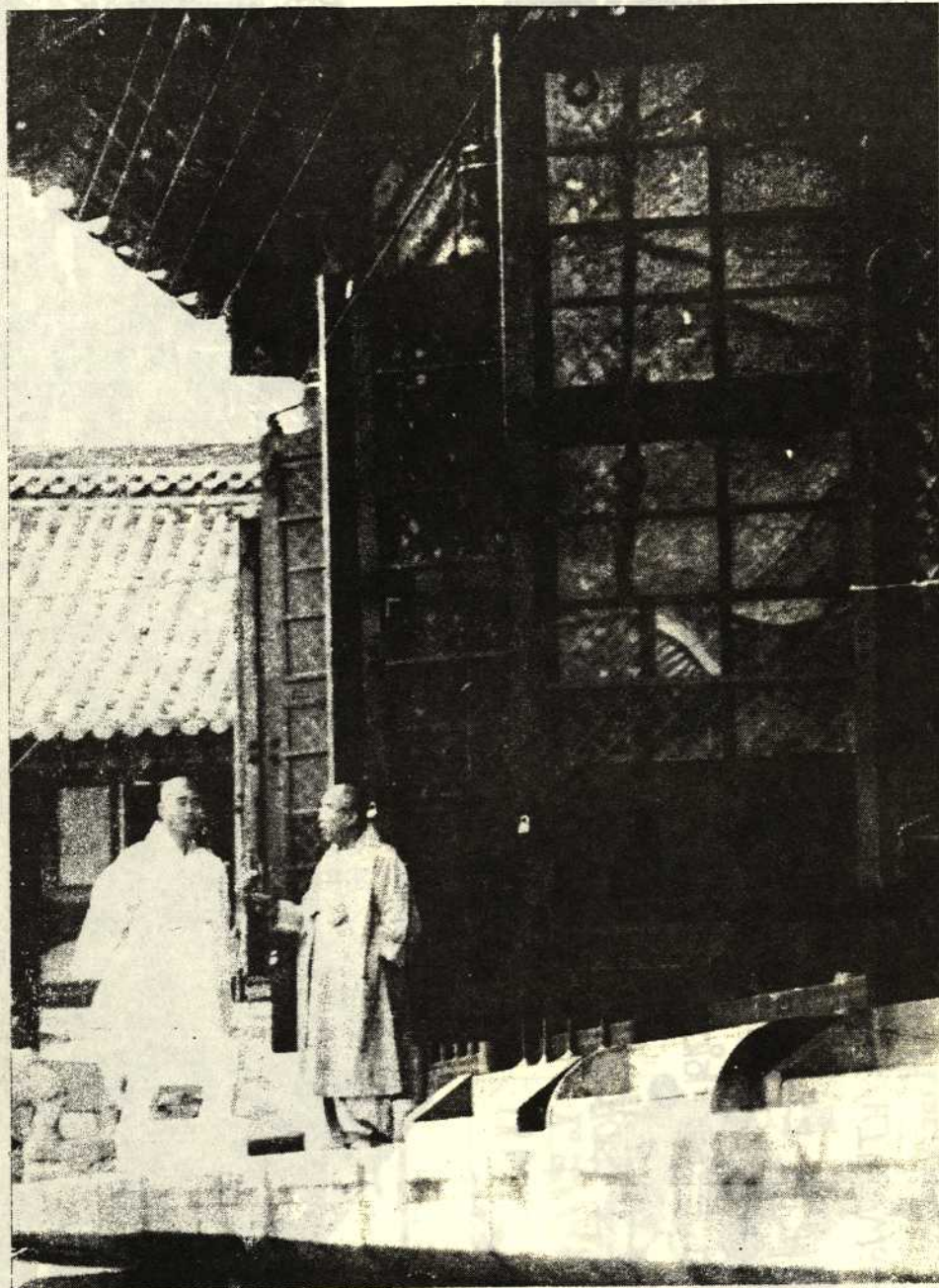


지난 9월 발족한 한총련 학부모 협의회(한화협)소속인 어머니 한분이 조계사를 방문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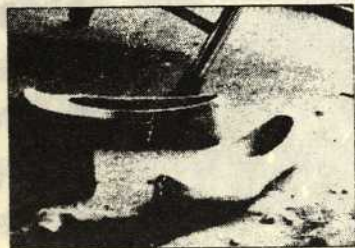


조계사 농성단의 일원인 유병문씨 '양수리에서'라는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맑은 날이면 밖에 나가고 싶어요.”라며 김성숙(전남대 가정관리학과 91)씨가 수줍게 웃는다. 태풍 예니가 북상하던 9월 29일 종로 1가에 위치한 조계사를 찾았다.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해제 촉구를 위한 한총련관련 수배자 8명이 52일째 농성을 하고 있었다. 조계사 모퉁이에 천막을 친 그들에게 자유는 조계사의 좁은 하늘 뿐이다. 그들에게 추석은 이미 남의 일처럼 되어버렸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 그들의 자리는 없다. ‘수배자’라는 이름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한 그들에게 인권은 없다.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숨어 다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수배자다.



올해 4월 전남대 수배자들이 주축이 되어 ‘전남대 수배자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을 하다가 8월 9일에 조계사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조계사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통신, 신문, 서명운동 등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열어 그들의 요구를 알리냈다.

그러나 정치 수배자들은 이들이 전부는 아니다. 국가 보안법이나 집시법 등으로 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노동자, 학생, 소설가 등 각계 각층에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배자의 정확한 인원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수배자 해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정권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실시되곤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권인 지금도 여전히 수배자는 생겨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기본권을 가로막는 국가 보안법 개정과 더불어 수배자에게 수배해제의 반가운 소리를 듣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계사를 나왔다.



## 우리에게 ‘젊음’을 되돌려 달라

수배해제 촉구 나선 한총련 관련 ‘학생들’

지난 8월 15일 아침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양심수 1백여 명이 세상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을 때,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나이 든’ 학생 7명이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김영삼 정부의 독단과 부정 부패가 나라를 망친 마당에 이에 저항하다 수배받은 우리들이 국민의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거리를 헤매야 하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5년이 넘게 학교를 등저은 사람도 있었다. 지난 93년 남총련 의장 활동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창규 씨(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오씨의 말에 따르면,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40여 명에 이르고 있고 모두가 오씨의 비슷한 신세에 놓여 있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 힘으로 떠돌아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오씨를 비롯해 수배해제 촉구에 나선 있는 7명의 ‘학생’들 모두는 이제 학생운동을 떠나야 할 나이에 이른 사람들이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전망을 찾아, 이전 학생운동의 선배로서 후배들과 만나길 원했다. 부정부패에 찌든 인사와 총칼을 휘두르던 인사들에게만 조지리 관용을 베풀고 있는 마당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젊음’을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직까지 학생운동의 ‘명예’를 지우려 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사진 이상엽·글 고동우



# 수배자의 빛과 그림자

사진·임종진 기자 | 글·최진섭 기자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는 한총련 수배학생 여덟 명이 아침마다 백팔배를 올린다.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해제'를 촉구하며 두 달 가까이 농성 중인 유병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오창규(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남총련 의장), 김현곤(서울대 87학번, 97년 한총련 연대사업위원), 엽동렬(건국대 농학과 91학번), 김성숙(전남대 가정관리학과 91학번, 97년 한총련 언론사업), 이영수(97년 서울농대 부총학생회장), 김재돈(97년 서울농대 학생회장), 홍춘호씨(97년 인천대 인문대학총학생회장)의 그림자를 밟아 보았다. (관련기사 108쪽)

## 정

치수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지난 8월 9일부터 조계사에서 천막농성 중인 여덟 명의 한총련 학생들은 아침마다 백팔배를 올리고 있다. '수배해제'의 마음을 모아 절 한 번 드릴 때마다 죽비를 치는 유병문씨(26, 불교학과)는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겸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젊은 시인이기도 하다. 수배 중 짬짬이 시를 써 온 그는 9월 13일 조계사에서 열린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맞춰 『양수리에서』라는 시집을 펴냈다. 유병문씨의 시들은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수배학생들, 그리고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도망자'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아버지란 이름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 가슴이 있었습니까/ 어머니란 이름에/ 눈가에 홍수지지 않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물에 젖은 행주를 짜면서/ 어머니, / 당신도 그렇게 우셨는지요"

「어머니-행주를 짜면서」의 전문이다. 수배학생들이 가장 힘든 때는 부모님에게 불효한다는 심정이 드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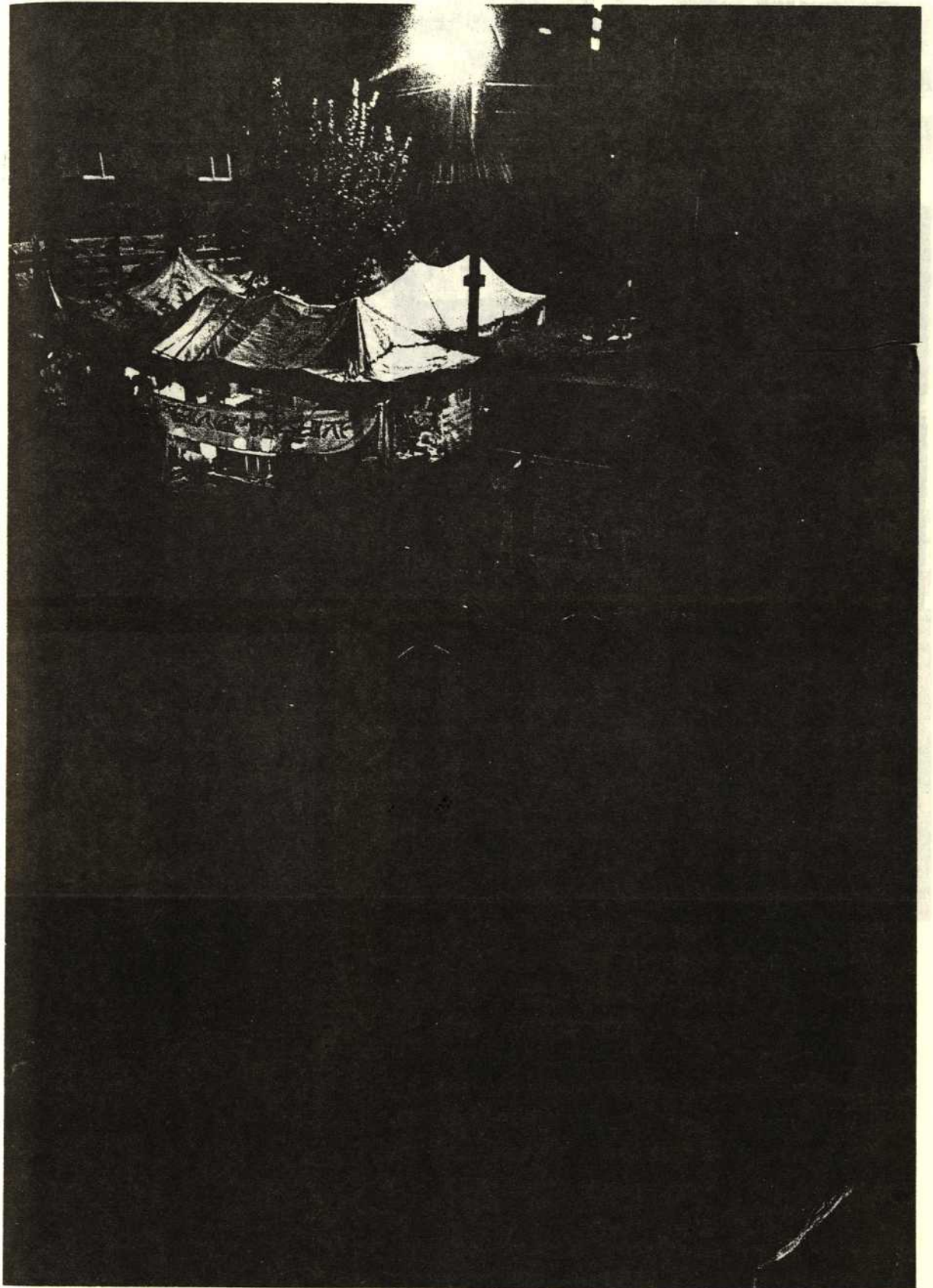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물었다. 수배 중에 눈물을 흘려 본 게 언제인가?

"어머님이 위암 수술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홍춘호)

"전화하다가 어머님이 흐느껴 우실 때." (김성숙)

"교도소에 가신 아버지 면회 한번 못 갔을 때." (오창규)

수배학생들의 부모들이 겪는 고통 또한 양심수의 가족 못지 않다. 양심수는 편지나 면회라도 가능하지만 수배자는 그렇지 않다. 면회는 둘째치고 의식주나마 제대로 해결하는지 걱정이 돼 양심수 가족들은 항상 노심초사다. 시와 노래의 밤에서 김평남씨(53)는 6년째 수배 중인 아들(오창규씨)에게 보내는 애절한 편지를 낭송해 듣는 이의 마음을 시리게 했다.



"어찌 지내느냐? 몸은 성히 있느냐? 끝없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기어가는 듯한 수배생활 여섯 해. 그 모진 여섯 해 세월이 이 어미 가슴을 할퀴고 또 할퀴면서 오늘까지 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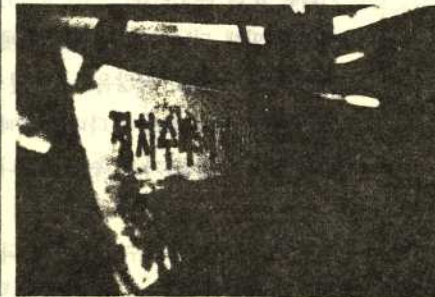
이 여린 가슴의 학생들은 무엇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을 '할퀴면서' 까지 수배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꺾어지게 만드는' 분단선 때문이 아니겠는가. 유병문의 시 「분단」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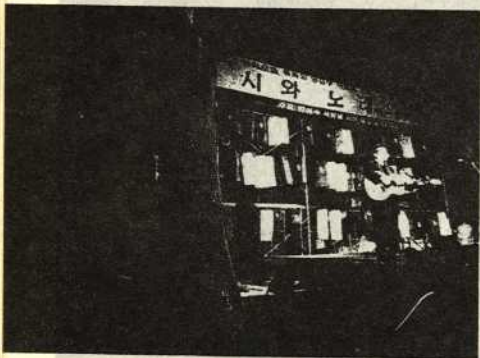


"아무리 끝은 막대라도/ 물잔 속에 들어가면/ 모주리 꺾어지듯/ 이 지긋지긋한 분단선 위에 선/ 따사롭고 인정 많은 조선의 마음도/ 그리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삼천리 금수강산도/ 참된 역사도/ 옳은 주의주장도/ 모두모두/ 꺾여진다/이 지긋지긋한 분단 위에선"



분단은 바로 이 수배학생들과 가족, 친구 까지도 갈라놓는 철조망을 드리우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인 사이에도 분단의 철조망을 친다. 유병문은 수배 중인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문숙희씨(96년 덕성여대 총학생회 간부)를 그리며 「분단의 사랑—중량경찰서 앞에서」라는 시를 썼다.





“나는 수배자/ 그대는 구속자/ 열 걸음도 채 안되는 거리/ 저 찾길 하나가 우리의 분단선/ 내 수배전단이 나붙은 길 건너 중랑경찰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맘도 까맣게 졸이며/ 그보다 간절한 그대 생각에/ 달려들고 싶었지/ 불나방 되어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에, 보고 싶은 애인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수배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것이 이들 농성자들의 바람이다. 지난 8·15사면 때 기대가 컸지만, 창살 없는 양심수들에겐 사면의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준법서약’이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고민’이나 ‘유감’의 뜻을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자진출두 할 수 있으나, 전적인 ‘반성’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칫하면 자신들의 공개적인 반성이 정부가 한총련 후배들을 고립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정치수배자들. “차비 걱정에 끼니 거른 날 몇 날인지 몰라도 스물넷 꿈많은 나의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노래(「나의 소망」)를 구슬피 부르며 숨어 다니는 수배학생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벽 속에 갇히지 않고 사람들 가슴 속에 피어나는 꽃이 되고자 한다.

“민들레 저 하나는/ 수만의 흙씨 되어/ 이 세상 속속들이 숨은/ 흙가슴들을 점령하는데/ 사람으로 난, 나 하나는/ 더불어 살아야 할 얼마나 많은 이들/ 가슴에 뿌리내리고 있는가” (「민들레 영토3」 전문)

특집  
한 총련을 살리자

정치수배자 오창규씨 어머니의 편지

# “정권이 바뀌면 내 아들 수배 풀릴 줄 알았는데……”

이 글은 지난 9월 13일 조계사에 열린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에서 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오창규씨의 어머니 김평남씨가 낭송한 편지의 전문이다.

그리운 내 아들 창규 보아라!  
옆에 두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어찌 지내느냐? 몸은 성히 있느냐?

끝없이 길고 캄캄한 터널 같은 수배생활 여섯 해, 그  
모진 세월이 어미 가슴을 할퀴고 또 할퀴면서 오늘까지  
왔구나. 참으로 기막힌 세월이다.

창규야!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네 아빠를 만나 너희  
두 쌍둥이와 그 밑으로 내리 두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이  
엄마는 행복했는지, 가난에 쪼들려도, 온 고을에 소문났  
세 나대는 개구쟁이 아들들 꿈무늬 쫓아다니느라 시달려  
도, 밤이 긴지, 낮이 긴지 모르게 손가락이 갈퀴가 되도  
록 힘들어도, 너희 형제들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  
서 이 엄마는 행복했다.

그러던 이 엄마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  
지. 80년 광주민중항쟁, 항쟁기간 내내 교원이셨던 네 아  
빠는 학교가 아닌 시내로 출근하시더군요. 아침에는 신발  
끈 풀라매시고 동구 밖으로 달려나갔다가 저녁이면 파김  
치가 되어 돌아오시곤 했지. “무엇했느냐”고 물으면 “몽  
유병 환자처럼 허우적대며 돌아다니다, 약쓰다, 쫓기다,  
그러다 돌아오는 거다”라고 하셨지. 그 이후 네 아빠는  
깊은 밤 가족 몰래 혼자 일어나셔서 한 마시지도 못하는  
독한 소주를 들이키며 “내 사랑하는 개새들 다 죽는다”고  
신음하셨지. 울분과 치욕을 삭히지 못하는 오밤중 술버릇  
은 십년 가까이 이어졌단다.

87년 6월 항쟁 때인 20일 새벽 병원에서 날아온 급보  
를 어찌 또 잊을까. 네 형 정규가 최류탄을 직격으로 맞  
아 실신한 채 응급실에 누워 있다는 그 소식 말이다. 이  
때부터가 본격적인 시련기였던가. 89년에는 네 아빠가 전  
교조 활동 때문에 25년간 지켜오시던 교단에서 쫓겨나 감  
옥으로 끌려가셨지. 그 후 엄마는 생계를 위해 방문판매  
에 나서 여러 가지 상품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매고, 직  
장으로, 가정집으로, 거리로 끊임없이 뛰었다. 하지만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을 하시는 아빠를 한번도 원망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다니면서 우리도 바르게 잘 살 수 있  
다는 신념으로 견뎌 왔단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아들이!

군 제대 후 복학한 네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남총  
련 의장이 되고, 네 형 정규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되면  
서 너희들의 수배생활이 시작되었구나. 그때부터 이 어  
미,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심장박동에도 이상이 생겼단  
다. 지친 몸으로 잠에 들라치면 거품 같은 것이 목까지  
차 오르며 숨이 딱 끊어지는 것 같아 깜짝 놀라서 일어나  
곤 했다. 그리고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 별을 보며 영영  
울기도 많이 했지. 그런 와중에 94년에는 남총련 배후조  
종과 범민련 결성수도 혐의로 네 아빠마저 또 감옥으로  
끌려가 삼년의 옥살이를 했었지.

어서 어서 좋은 세상이 와서 내 아들 내 남편 온 가족  
이 모두 모여 살기를 무등산 바라보며 얼마나 기도했던  
가. 그러다 김대중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 어  
미의 기쁨에 벽산 가슴을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이게 웬



일이나. 내 아들 수배 풀리고. 내 남편 사면 복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모든 아들. 딸들 죄사슬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나? 민주대통령. 통일대통령 세워



지난 9월 13일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 편지를 낭송하고 있는 김명남씨(가운데)와 그의 아들 오창규씨(오른쪽).

야 한다고 그리고 애쓰던 너희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 이더라 말이나. 이 어머니가 워낙 아는 것이 없는 아낙이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것이냐. 애간장이 타서 못살겠구나.

그리운 내 아들 창규야!  
이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다.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한총련 아이들 어서 빨리 풀어주세요. 나라의 기둥 되는 우리 청년들. 의로운 생각으로

나섰는데 세 자리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들이 애국노의 길을 가거나. 나라를 도둑질하거나. 독재에 아첨하거나. 또 갈라진 나라를 기어이 토막내

러 하거든 엄벌해 주세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애국의 길로. 민주의 길로. 통일의 길로 가고자 하거든 큰 가슴에 품고 어루만져 주세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애야 둘애야!  
보고 싶구나.  
광주에서 엄마가.

###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운 어머니께 보내신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슴 한 쪽에 깊숙이 묻어 두었던 애정을 확인하고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봄 제가 불쑥 집에 들렸죠. 너무나 오랜만에 찾은 집이라 어색해서.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곧 바로 어머니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 모습에 죄스럽고 막막하던 그 때의 심정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불효 자식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저 반가이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어머니. 그 자리가 금의환향의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이비 문인정부 5년을 견디기만 하면 꽃다발에 박수 받으며 귀향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타향 땅에서 남녘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히 돌아갈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정권교체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비 문인정부 김영삼 정부도 수배를 해제해 주었는데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가 이 정도쯤이야 쉽게 해줄 걸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긴 수배생활로 체념과 초연함에 길들여진 지 오래이긴만. 끝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기다림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깃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심정으로 또 다시 수배자의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최소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자 상경 농성투쟁을 시작한 지도 벌써 36일째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불침번을 서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노라면 그리운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들, 친구들, 그리고 옛 동지들. 이제 그만 그리운 아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6년간의 수배생활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결말이 수배해제인 아니면 교도소행이든 말입니다. 양심과 지조를 일관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하지만 시련과 난관이야말로 제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몇 골절 더한 시련이 제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저는 이겨낼 것입니다. 좌절 끝에 인생의 참의미를 배우고 시련 속에 나를 키워갈 것입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이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간장 많이 태우셨죠?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곧 오겠지요.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계사 농성장에서 창규 올림

## 한총련관련 시국사범 처리 각축

한총련관련 수배자와 구속자 등 김영삼정권하 시국사범처리 문제가 새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최근 당정책회의를 통해 과거 정권하의 한총련관련 수

배자들에 대해서 준법서약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후 일괄적인 기소유예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했다.

진관스님, 함세웅신부, 홍근수목사, 전대협동우회 등 재야인사들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번주 국민회의 한화갑 원내총무, 정균환 사무총장 등 고위당직자와 연쇄접촉을 통해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중인 8명의 한총

방안에서는 타협점을 찾기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등 공안당국은 이들의 일괄적인 수배해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사태해결이 쉽지 않은 전망이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한총련 간부들은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정기적으로 녹취하며 학생들을 선동한 명백한 이적행위자들"이라며 "그러나 한총련 탈퇴와 최소한의 준법



불공 드리는 한총련 학생운동으로 수배됐던 한총련 소속 수배자들의 조계사 농성이 3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문인정부 시절 수배됐던 이들은 매일 아침 대웅전 앞에서 108배로 마음을 정리하며 새 정부에 수배해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 울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한명섭 기자)

### 재야인사 협상단 국민회의와 접촉 구제 원칙 합의 수배해제엔 난색 학생들 30여일째 조계사에서 농성

련 수배자 처리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협상단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김영삼정권의 실정에 항의한 한총련 학생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해결

서약이 전제된다면 과거정권하의 갈등해소위원회에서 일괄적인 기소유예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변의 김도형 변호사는 "새정권 들어 단행한 8.15 특별사면중 69명은 가석방, 25명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대통령 고유관한 특별사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김대중대통령은 이제라도 제2의 전향사인 준법서약서 제도를 철폐하고 양심수 전원석방과 수배해제를 즉각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련 권영길, 이갑용 등 재야 시민단체대표 80여명은 지난 2일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해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3일에는 조계사에서 수배해제 문화제를 가질 예정이다.

(홍기삼 기자)

# 한겨레

THE HANKYORE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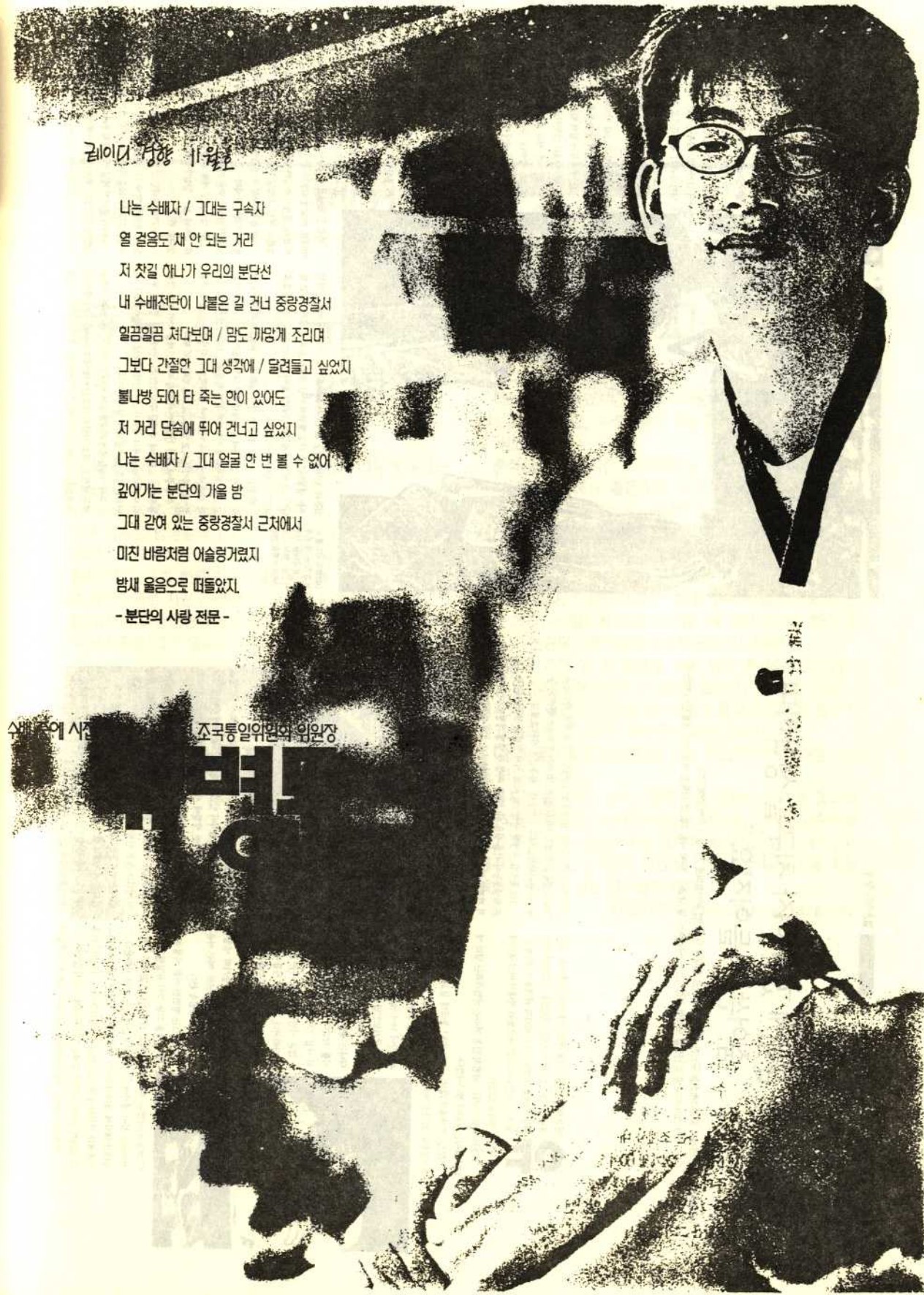
10월 17일

제보문의 [society@mail.hani.co.kr](mailto:society@mail.hani.co.kr)

한겨레



**정치수배 해제 촉구** 16일 수배자가족과 학생 등 100여명이 조계사에서 민중생존권 보장과 국가보안법철폐·정치수배해제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재성 기자



레이디 정향 11월호

나는 수배자 / 그대는 구속자  
 열 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  
 저 찻길 아나가 우리의 분단선  
 내 수배전단이 나뉘는 길 건너 중랑경찰서  
 일곱일곱 쳐다보며 / 맘도 까맣게 조리대  
 그보다 간절한 그대 생각에 / 울컥하고 싶었지  
 불나방 되어 타 죽는 안이 있어도  
 저 거리 단숨에 뛰어 건너고 싶었지  
 나는 수배자 / 그대 얼굴 안 번 볼 수 없어  
 깊어가는 분단의 가을 밤  
 그대 같이 있는 중랑경찰서 근처에서  
 미진 바람처럼 어슬렁거렸지  
 밤새 울음으로 떠돌았지  
 -분단의 사랑 전문-

수배자에 시집 조국통일위원회의 위원장

정향

